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2 02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C o n t e n t 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2. 02. vol 60



남산예술센터 2012 시즌 오프닝작 <풍찬노숙>은 '혼혈'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풍자와 유머, 그리고 파격으로 전달하는 작품이다.



04



24



48

02 아트 갤러리 이달의 표지 작가, 봄로야

2월의 문화+서울 | 나만의 기업 만들기

- 04 누가 일자리를 묻는가?
- 06 1인기업 전성시대
- 10 세상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 1인기업 해외 사례
- 12 작지만 수요가 분명한 틈새를 찾아라, 1인기업가 공병호 박사
- 14 사회적기업도 경쟁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오방놀이터' 박정미 대표
- 16 1인기업 창업을 위한 A to Z

사람과 사람

- 18 문화인 나이 따위 상관없어 내 인생, 영화감독 정지영
- 24 영 아티스트 이 소년의 음악여행, 색소포니스트 신최고영진
- 30 나의 서울 생활기 다문화 가수 헤라
- 34 서울 단상 인디라이터 명로진의 흥대 찬가

지금 서울은

- 36 이슈 1 문화예술 분야의 모금과 기부가 확대되려면...
- 40 이슈 2 만화와 독자가 가장 간편하게 만나는 스마트폰 혁명
- 44 이슈 3 신(新) 청춘열풍
- 48 이슈 4 재래시장 속 이색공간
- 52 연재 문화예술과 SNS ③ 문화예술, 소셜미디어와 함께 진화하다
- 56 이미지 서울 웃음, 찰떡!
- 58 이달의 평론 성장을 멈춘 언니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최치언 작, 이성열 연출, 극단 백수광부의 〈언니들〉
- 62 리뷰 1 필성부른 소설을 찾아라, 문화계 리메이크 열풍
- 64 리뷰 2 연극 〈풍찬노숙〉
- 66 리뷰 3 현실의 그라운드에서 서다, 최근 야구영화들의 새 경향

서울 너머로

- 68 해외 트렌드 제64차 ISPA 뉴욕 총회
- 70 해외 뉴스 베를린, 파리, 뉴욕

문화@서울

- 72 최충우돌 문화 체험 서교예술실험센터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
- 76 MUST 7 2월의 문화 소식
- 78 문화 캘린더
- 79 SFAC 뉴스
- 82 현장 인터뷰
- 84 독자의 소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2년 1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한문철(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알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1



2

이달의 표지 작가

봄로아

호기심으로부터



4

작품의 색감은 대체로 따뜻하데 들여다보면 우울감이 담겨있는 것 같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스스로 '난 우울하겠어'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우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울함에서 따뜻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존하고 싶다. 나를 비롯해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우울감의 궁극적인 이유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찾고 관찰하고 위로하고 싶다. 그 생각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호기심 많은 여자의 눈에 보이는 일상 속 판타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주로 작품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나? 초현실, 꿈, 동물, 식물, 수평선, 반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작품의 아이디어가 된다.

그림 소설 <선인장 크래커>에 이어 또 한 권의 책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어떤 책인지 소개해 달라. 책에 관한 그림 에세이다.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준 책들을 골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해석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올 해 상반기 안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책도 냈고 전시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해보고 싶은 또 다른 작업이 있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지 반성 중이라 지금은 '내공 쌓기 놀이' 중이다.

서울문화재단 지원으로 개인전 <눈물이 내리는 노래> 개최. 숙명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를 졸업했다. 그림 소설과 음반 <선인장 크래커>를 낸 바 있으며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갤러리 스케이프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독립문화와 상업문화 사이의 스펙트럼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조금씩 확장 중이다.

홈페이지 <http://bomroya.com>

- 1 <돌아오지 않을 24살>, Photograph, pencil, ink and canvas satin print, 25×50cm, 2007
- 2 <오색비가 내리는 숲>, Mixed media and Textured fineart paper print, 60×90cm, 2007
- 3 <7321 디자인 노트 이미지>, Mixed media and digital collage, 2008
- 4 <플라밍고 아저씨>, Mixed media and Textured fineart paper print, 60×90cm, 2007
아이를 잃은 플라밍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부재'를 나타내는 작품. 그림 속에 자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소설 속 연인이 동물원에서의 눈부신 추억을 곱씹어 내려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3

나 만 의 기 업 만 들 기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고용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성실함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장착한 이들은 자신만의 기업을 창출해낸다. 이른바 1인기업, 창조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불리는 기업들이다.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작은 분야지만 수요는 분명이 자리하는 틈새를 파고든 알짜 기업들.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창조성을 발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들 기업의 세계를 만나본다.

누가



일 자리를 묻는가?



1인기업 전성시대

1인기업이란 무엇인가?

지금 필자는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물론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SSD를 장착한 최신 노트북이다. 두 대의 노트북이 들어가는 배낭에는 각종 케이블과 ITB 외장 HDD도 들어 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 외장 HDD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자료는 유명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어 인터넷만 연결하면 최신 데이터

로 동기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무선 인터넷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있는 두 대의 스마트폰 중 배터리가 충분한 걸로 테더링하고 있다. 조금 느리긴 해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

실업이 창업으로

소호기업, 벤처기업 등을 거쳐 1인기업으로 이어지기까지 필자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0여 년 전에는 1인기업으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괜찮은 노트북은 가격도 가격이지니와 그 무게가 3킬로그램이 넘었고, 인터넷은 물론 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곳이 시내에도 많았기 때문이다. 전원 케이블을 구하기 위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구석에 있는 콘센트를 찾았고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 충전을 하기도 했지만, 밥 먹을 때를 제외하면 편히 앉아 일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을 열 수밖에 없고, 한 번 사무실을 갖게 되면 이동은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약 4~5년 전부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실업률은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진국일수록 국민복지 차원에서 실업률을 주의 깊게 관리하는 편인데, 경제가 저성장하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일기 시작했다. 예전에 비해 창업 열기가 식고 기업의 성장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대학 졸업 후, 혹은 퇴사 후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여기에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려는 기업들의 경영 압박이 시작되면서 근무환경 역시 여유를 잃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일어났다.

보통창조융합포럼(V) ©



- 1 주로 1인기업과 청년창업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창조융합협회 행사 모습.
- 2 지원하는 기업들의 대표자들과 함께하는 마인드 네트워킹교육 '혁신가 워크숍'.



2

대부분의 1인기업인들은 이전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나,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이 1인기업에 도전한 이유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아실현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저마다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초소형 기업의 창업 지원에 나섰다. 관련 활동에 지원을 키워가면서 높은 실업률을 창업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호 같은 형태의 새로운 창업기업이 탄생하고, 프리랜서로 불리는 전문가들이 늘어났다. 1인기업은 이 흐름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산물로서 프리랜서 수준의 자유로움과 소호 기업의 토대를 동시에 갖는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IT 열풍, 1인기업을 탄생시키다

무엇보다 1인기업의 열기를 본격적으로 불붙게 만든 데에는 IT와 인터넷 열풍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IT 열풍이 일면서 IT 기기들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기 시작한 것이다. 배터리의 무게가 늘지 않으면서도 용량은 늘어났고, 전국 방방곡곡에 PC방이 생기면서 수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IMF라는 어려움 속에서 생긴 PC방은 한 해에만 3만 곳이 생겨났다. 잉크젯 프린터의 발전은 가정에서도 컬러 출력을 가능케 해주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좋은 제안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속도는 조금 느려도 자기 전에 출력을 제대로 해두기만 하면 아침에는 필

요한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다양한 기기들의 발전 덕분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IT 혁명은 1인기업의 출발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1인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홍보, 마케팅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만약 인터넷이 없었다면 한 사람이 기업을 세워 홍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은 보다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뿐 아니다. 한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키운 카페와 블로그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접속자가 방문하면서 메일 한 통으로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이 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터넷을 활용해 자료를 주고받는 일이 흔해지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샘플 제작이 줄어들었다. 필자 역시도 어제 새로운 명함 시안을 메일에 첨부된 이미지 파일로 확인했다. 예전 같으면 직접 가서 시안을 확인해야 했을 테니 시간과 비용이 이만저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홍보, 마케팅, 영업 이런 건 대기업이라고 해도 쉽지 않다. 모든 기업이 겪는 어려움인데, 앞으로 1인기업이 이 부분에서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저비용 채널이 생겨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더없이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혁명적인 수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다

지금 서울에서는 연간 1만 개 이상의 1인기업이 탄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531호'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지원을 약

속하고 있다. 기존 84개 업종에 대해서만 한정된 지원을 372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공동창업, 가족기업 등의 형태를 고려해 4명까지도 1인기업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창조캠퍼스, 창조마을, 청년창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전 체험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 창업이 갖는 여러 어려움을 미리 체험하고, 위험요소를 낮추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창업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1인이 등록한 회사는 130만 개 정도이며, 이중 1인창조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20만 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많은 1인기업들이 탄생 후 1~2년 내에 문을 닫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준비가 안 된 1인기업들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 불신과 혼란이 커지기도 한다.

필자는 국내 최초의 1인기업 네트워크인 '크레벤'을 통해 1만여 개의 다양한 1인기업들을 접하게 됐는데, 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다. 의외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1인기업을 선택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1인기업인들은 이전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나,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이 1인기업에 도전한 이유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창조인마을 Open House



1

창조인마을 창업인턴제



2

- 1 1인기업의 정착을 위해 민간차원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사)한국창조고용협회의 행사 모습.
- 2 창직인턴교육 일지리박람회 창직인턴 설명 현장.
- 3 창의적 아이디어 창업을 돕는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청년 멘토를 만나다' 프로젝트. 이민화 교수 편.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아실현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욕구가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주변에서 흔히 발견된 적은 없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멋진 기계들이 저렴해지고, 인터넷과 정부 지원까지 맞물리면서 멋지게 자리잡은 1인기업의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1인기업 도전자들을 자극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한국사회 자체가 성장하면서 과거에 비해 여러 안전 장치들이 많아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

민간이 나서야 할 때

1인기업은 유엔미래포럼이 발표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도 언급될 만큼 확고한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가올 현실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초기에 지원이 집중된 덕분에 많은 1인기업들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민간의 앞선 노하우가 정부 정책에서는 반영되는 경우가 아직 드문 편이고, 너무 다양한 1인기업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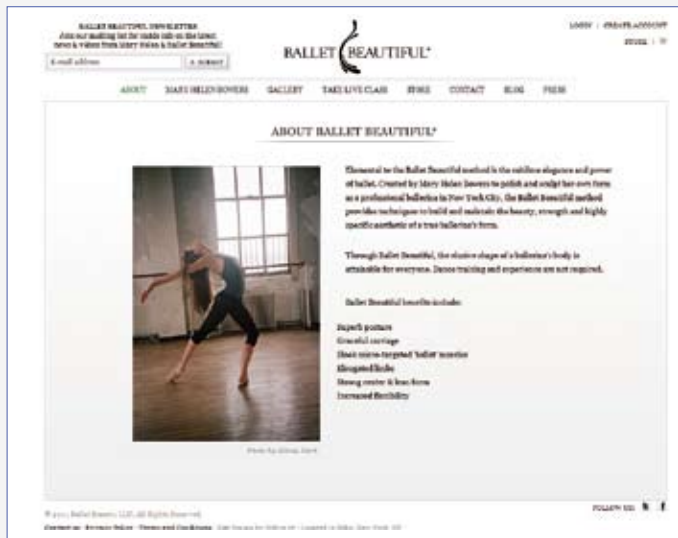
1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힘써야 한다. 초기에 지원이 집중된 덕분에 많은 1인기업들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민간의 앞선 노하우가 정부 정책에서는 반영되는 경우가 아직 드문 편이고, 너무 다양한 1인기업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꽤 많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넘어 이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한다. 필자 또한 여러 개의 1인기업 네트워크를 운영해왔고, C.A.N(Creative Action Network)을 통해 1인기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이들의 상호 간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제대로 정착하려면 3~4년의 시간이 필요 한데,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1년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2년차부터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앞선 1인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민간에서 얼마나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1인기업의 천국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아닌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 이 칼럼을 쓰면서도 상상해본다. 아마 많은 이들이 이 칼럼을 읽고 1인기업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제 1인기업은 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일반화될 것이다. 만약 망설이고 있다면, 가까운 1인기업가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바란다. 필자가 이 자리에서 들려주지 못한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1인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

1 인 기 업 해 외 사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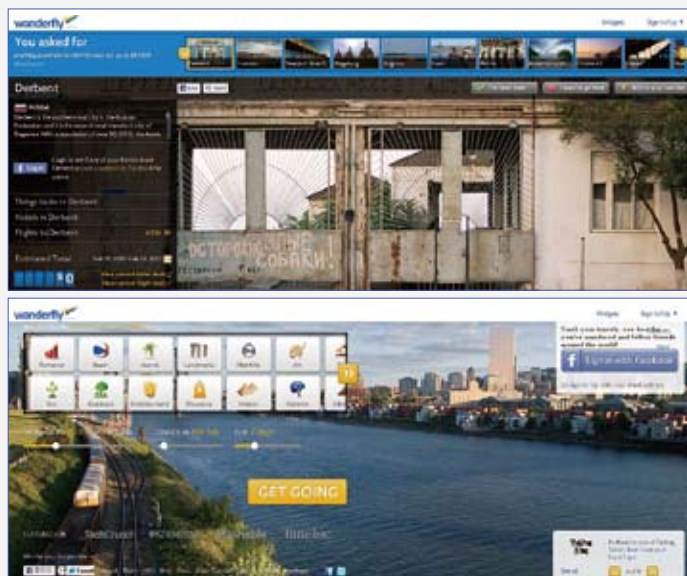
■ 세계 최초 온라인 발레 교습소

발레 뷰티폴 www.balletbeautiful.com

뉴욕시발레단의 단원이었던 마리 헬렌 보워는 영화 <블랙 스완>의 주인공인 나탈리 포트만으로부터 발레 교습 요청을 받았다. 부상 이후 2008년부터 뉴욕에서 개인 교습을 하고 있던 그는 할리우드에서 있는 나탈리 포트만을 가르치기 위해 뉴욕에서의 개인 교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교습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온라인 교습을 결정했고, 할리우드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iChat을 이용하여 뉴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을 이어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예상외의 호응을 얻자 본격적인 온라인 발레 교습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웹 구축 및 촬영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고 2010년, 세계 최초의 온라인 발레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온라인 발레 스튜디오 구축에는 약 4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는 대기업 의뢰시에 드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 그는 온라인 교습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맨해튼에 오프라인 교습소를 오픈하여 병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업의 75% 정도는 온라인 교습에 집중하고 있다. 발레 뷰티폴은 2011년 12월 기준 50개국 1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15분짜리 스트리밍 비디오와 DVD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워의 성공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DIY 웹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온라인 사이트 구축과정에서 창업자가 원하는 세밀한 부분을 적용, 그만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브랜드를 촉진하고 성장시켰다. 마지막으로 발레 수업은 오프라인 교습소에서만 수강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온라인 수업을 개설함으로써 대중들이 발레라는 고급예술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낸 것이다.



■ 맞춤형 여행 정보

웬더플라이 www.wanderfly.com

IBISWorld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체 여행자 가운데 82%는 온라인으로 여행계획을 세우며, 58%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진행한다고 한다. 여행자의 변화된 소비패턴에 따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여행사들은 몇 해 전부터 온라인 여행 사이트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온라인 여행사가운데서도 웬더플라이가 유독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여행자는 출발지, 일정, 예산 등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추천을 받고자 여행을 방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입맛에 맞는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인 여행 사이트에서는 선택의 폭을 좁혀둔 패키지 상품을 소개하므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힘들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자유여행자들에게 온라인 여행사의 UX(사용자경험)는 불편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웬더플라이의 창업자 에반 슈나이더는 여행지 정보탐색부터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새로운 여행 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했다.

여행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의 방대한 여행자료에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웬더플라이는 여행자가 일정, 예산, 출발지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최적의 가격과 옵션을 제안하는 상품과 해당 여행지의 숙박정보, 기볼 만한 곳, 음식점 등의 목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217개 국가, 1,400개 이상의 도시에 관한 400개의 여행 관련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SNS를 통해 여행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용자가 현지 날씨를 제공하게 하는 등 풍부하고 신속한 여행정보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웬더플라이는 2010년 10월 개설 이래 엔젤투자자로부터 100만 달러를 펀딩받았으며, 초기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은 현재 12명으로 확장되었다.

■ 환경친화적인 화분용 흙

오거닉 메커닉

www.organicmechanicsoil.com

원예박사인 오거닉 메커닉의 창업자 마크 하이랜드는 2006년, 원예흙시장의 성장을 예견했고, 전공을 살려 지속가능한 화분용 흙 개발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환경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화분용 흙의 개발을 목표로 했는데, 여타 창업자들처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다.

주변에서는 하이랜드가 개발하려는 친환경 흙이 재사용 가능하므로 시장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하이랜드는 원예라는 취미생활 자체가 중독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일단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오거닉 메커닉은 현재 단일품목의 화분용 흙에서 8개 품목을 추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에도 납품하고 있다. 하이랜드 박사 혼자 시작했던 사업은 현재 7명을 고용하는 기업체로 성장했으며 2012년 3개 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미국 대서양 지역의 유일한 화분용 흙을 개발함으로써 자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원예수업도 함께 진행하여 원예제품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자기 분야의 전문기술과 경영자마인드를 갖추었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창업기업이다.



작지만 수요가 분명한 틈새를 찾아라

1 인 기 업 가 공 병 호 박 사

매년 5권 이상의 책을 쓰고, 365일 중 300회 이상의 강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사람. 지식과 정보의 전파와 재가공을 통해 성공적인 1인기업의 모델을 구축한 '공병호 경영연구소' 공병호 박사를 만났다.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한 경험을 소개한다.

잘나가는 직장인에서 기업 CEO로서의 경험을 거치고, 1인기업가로 나서게 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당시 제 나이가 41세로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전직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뭔가 전환의 필요를 느꼈지요. 말하자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향후 10년 정도가 내가 일할 수 있는 최고조의 시간이 될 텐데, 가장 활동력이 있을 때 인생의 모험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조직생활도 잘했고 출세도 빠르게 한 편이에요. 하지만 회사생활에서라면 필연적으로 지볼해야 할 여러 절차와 과정 없이 오로지 '내 일'에만 몰두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박사님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1인기업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출발 단계에서는 이전에 축적된 '작은 성공의 경험'이 큰 힘이 됩니다. '엄청 전하게' 보낸 30대의 회사생활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진짜 내 일처럼 몰입해서 했던 경험이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내가 함께 윈윈할 수 있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에 몰입했거든요.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 바로 그런 일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인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마 회사에서도 최상위의 능력을 인정받았을 겁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민첩하며 도전적이라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다 운도 좋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대박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초조해지는 이유가 '빨리' 성공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성공은 없어요.

1인기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유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무한 자유와 경제적 자유(여유)가 아니라면 시작하지 않았겠죠. 회사에 다닐 때는 기여한 바에 비례해서 봉급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1인기업에서는 본인의 능력만큼 경제적인 성공도 따라온

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물론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1인기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면요?

본인의 주력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지요. 거기에 삶의 주체로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무책임한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지금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1인기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만의 독창적인 상품을 생산해낼 기초가 완비되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을 거쳐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시간을 밀도 있게 살아야 해요. 그런 준비 없이 선불리 나서면 안 되지요.

만일 사회경험 없이 처음부터 1인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확실한 자기만의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험상 기회란 새벽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보이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보이더라는 얘기지요. 경험 부족을 상회하고도 남을 탁월함이 있다면 물론 기회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 됐든, 사장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1인기업에 대한 도전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또한 승승장구만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고로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경험은 버릴 만한 게 거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관건은 실패의 원인에 대한 아주 '솔직한' 분석입니다. 그래야 실패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실패의 경험조차 선용하는, 실패의 쓰라림을 지불함으로써 얻어지는 깨달음을 다음 단계의 성공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박사님의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인 '자기경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 공병호 경영연구소(<http://www.gong.co.kr>)

본인의 주력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이지요. 거기에 삶의 주체로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무책임한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성실한 길로는 안 됩니다. 인생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20대에 해야 할 일, 30대, 40대, 50대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단계적 구상을 세워놓고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세상 탓하지 말고 냉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탓하지 말고 분노만 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할 것.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1인기업을 시도하기에 유망한 영역이 따로 있을까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분야입니다. 면도날로 잘라내듯이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그런 감각을 평소 키워놔야 하겠지요. 정보를 재가공하거나 상징을 조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거나 하는 등의 영역. 여기엔 대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수공예도 그렇지요. 뭔가 대기업이 덤비기엔 작고, 그러나 수요가 분명한 부문, 그런 틈새는 항상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펴낸 책이 98권인데, 매주 중 2권의 책이 더 나오면 100권을 채우게 됩니다.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연결한 행복한 인생이지요. 앞으로 실용서 50권, 고전과 관련된 저작을 한 100권 정도 쓰고 싶습니다. 책을 쓰면서 여행도 할 겁니다. 물론 고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와 도시들 일 겁니다. 이 넓은 세상에 일엽편주(一葉片舟)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인간적으로 원숙한 사람,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도 경쟁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오방놀이터’ 박정이 대표

유수의 대학을 나와 소위 ‘잘나가는’ 직장을 다녔어도,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의 책임을 지는 순간 의도치 않게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여성들이 모여 육아와 사회적 활동을 결합한 형태의 회사를 만들었다.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오방놀이터’의 박정이 대표를 만나 주부들이 일군 사회적기업의 탄생과 성장 스토리를 들었다.

오방놀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오방놀이터는 결혼, 임신, 육아, 출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직접 제작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천연염색 원단을 소재로 아이들의 장난감과 놀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아이도 엄마도 즐거운

놀이문화를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친환경 장난감의 생산 판매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사업 평가를 통해 이후 주력할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회사의 구성원과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모두 9명의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주부’, ‘아줌마’로 불리던 사람들이데, 지금은 가사와 회사일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 되었지요. 그 9명이 기획홍보팀, 공간서비스팀, 디자인개발 및 제작팀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경험을 최대한 복원





2



3

- 1 사회적기업
오방놀이터의 직원들.
사진 오른쪽 아래가
박정이 대표.
- 2·3 오방놀이터는 친환경
장난감과 함께
프로그램으로 놀이를
진행한다.

하고 개발해가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삶의 만족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입니다.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성으로서, 주부로서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직업의 창조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정말 소박한 시작이었어요. 그냥 몇몇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의 친환경 장난감을 만들어보자는 ‘일 공동체’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0 소셜벤처 서울강원권역별 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내 아들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기업 49’에 수록된 바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일반 키즈카페와 비교할 때 오방놀이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친환경이라는 코드와 ‘더불어 함께’라는 가치. 그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경쟁력이자 시장성입니다. 보통 키즈카페 하면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있고 아이들 각자가 먼저 차지한 장난감으로 알아서 노는 형태인 데 반해, 저희 오방놀이터에서는 자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장난감으로 프로그램식으로 진행되는 놀이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장난감도 미리 진열해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지도교사가 안내해주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전에는 판매도 했지만, 저희가 제작하는 장난감은 판매를 위한 상품보다는 이 공간을 채우고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타적으로 ‘선점’하고 경쟁적으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함께 나누며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되게 하자는 게 저희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편의상 ‘키즈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가족카페’의 의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쉴 수 있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소박하게 시작한 주부들의 일이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진화해갈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가장 큰 소득일 것입니다. 막연히 상상하고 소망했던 일을 실제로 해냈다는 자신감, 그리고 구성원들 스스로 ‘직장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강화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소소하기는 하지만 매달 전 직원이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시간 내에 대단한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 다. 처음부터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오래 가는 기업, 탄탄하게 성장해가는 알찬 기업으로 키워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 계획했던 대로 의 단계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중이지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시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향후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장기적으로는 3년 내에 최소 3개 지점의 프랜차이즈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도 그때 정도가 진정한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익 극대화에 매진해보려고 합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지속 가능케 하는 물적인 토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3월에 확장 운영되는 키즈카페의 본격 오픈은 바로 그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현재 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기획력과 조직운영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지요. 관련된 분야에서의 사전 인턴십 과정을 거치는 등, 스스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각오와 노력이 필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근 1인기업 창업을 결심한 A씨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고용 불안정이 가속화되면서 1인기업 창업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지원책도 많아졌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정부는 A씨 같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1인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했다. 자본금이 적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조금만 찾아보면 A씨의 고민은 의외로 쉽게 풀린다. 아이디어비즈뱅크 홈페이지(www.ideabiz.or.kr)에 접속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비즈뱅크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이다.

먼저, 지원대상 업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IT서비스 분야나 만화, 드라마, 영화제작 등의 문화콘텐츠 서비스 분야, 전통소재의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인지 전화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난해 10월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발효되고, 지원 예산도 2009년 213억 원, 2011년 500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1,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00% 넘게 늘어났다. 또한 공동 창업, 공동 대표 등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때는 4인까지 1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준다. 1인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자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본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 공간 확보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21개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마련한다.

성장단계에 진입한 1인기업의 보다 큰 발돋움 위해 필요한 홍보 및 협력 강화를 확대하는 지원도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1인기업의 우수함을 알리고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단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비즈뱅크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과정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프로젝트 거래물'은 아이디어비즈뱅크 홈페이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인기업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이 웹사이트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서로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정회원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도 운영한다.

사회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인 소셜벤처를 위한 지원센터도 있다. 소셜벤처인큐베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인기업을 위한 A to Z



©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www.creativecampus.kr)



© 창업진흥원 창직인턴제(http://blog.naver.com/creative_job)

© 창업진흥원 창작인턴제(http://blog.naver.com/creative_job)



3



4



5

팅센터(www.soven.co.kr)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인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를 선발하여 창업 초기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사무실 무상 임대, 전문가 경영코치, 워크숍 및 네트워킹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 주기로 운영되고, 입주팀은 시기별 평가를 통해 지원 등급을 재조정받는다. 최대 2년까지 지원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4기까지 입주해 있으며 입주모집 시기와 지원방법 등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1인기업 성공시대》는 1인기업을 창업해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크레벤의 백기락 대표가 쓴 책이다. 1인기업 전문가인 그가 1인기업의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밝힌다. 1인기업 창업 준비과정, 아이템 선정, 인맥 관리, 정보 수집, 기술력 확보, 아웃소싱, 영업과 마케팅, 정부 육성정책 등 오랜 기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은 1인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았다. 먼저 도전했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전문가의 책이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1인 창조기업 사용 매뉴얼》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1인기업의 모든 것을 다루는 가이드북이다. 각종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자세히

- 1 창의적 아이디어 창업을 돕는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청년 멘토를 만나다' 프로젝트(서경덕교수 편).
- 2 '창조캠퍼스 아이디어 어워드'는 청년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3 2011 지식서비스 창업대전에서의 인턴제 참여기업 전시 모습.
- 4 《1인기업 성공시대》는 1인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관한 생생한 노하우를 밝힌 책이다.
- 5 1인기업의 모든 것을 다룬 가이드북, 《1인 창조기업 사용 매뉴얼》.
- 6 예비 1인기업가의 협업 커뮤니티, 1인창조기업협회의 멘토스쿨 수료식.

게 소개한다. 창업하면서 실제 부딪히게 될 문제들과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

1인기업을 창업하는 절차나 지원사업 정보를 살피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이다. 공병호 경영연구소(www.gong.co.kr)는 창업을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유익한 글들로 가득하다. 한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성공한 1인기업가 공병호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기경영아카데미 강의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한 명의 1인기업가 구본형은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www.bhgoo.com)를 운영한다.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는 자기경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교환하는 공간이다. 자기경영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공한 1인기업가들의 조언을 놓치지 않고 주의할 점을 계속 숙지해나가면서, 1인기업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비 1인기업가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협업 커뮤니티 1인창조기업협회(<http://cafe.naver.com/1ceocom>)는 정부지원정책, 교육 및 세미나, 협업 프로젝트 등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일정하게 모임을 가지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다. 정회원으로 등록해야만 함께 활동할 수 있다. 물론 열린 마음은 필수다.



6

나이 따위 상관없어, 내 인생

영화감독

정지영

●

정지영 감독은 요즘 엄청난 인터뷰를 소화하는 중이다. 어지간한 미디어들이 그와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섰다. 실로 오랜만에 관객과 랑데부하는 작가에 대한 환대를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이례적이다. 혹자는 <부러진 화살>의 '석궁 사건' 관련 판사가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 수감을 결정한 인물과 동일하다는 점이 화제를 낳았다고 말한다. 혹은 정치 현실을 비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게다. 하지만 <부러진 화살>의 만듦새가 훌륭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상관이었나. <부러진 화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영화의 목소리에 수긍하게 된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복귀작을 완성한 정지영 감독과 대화를 나누었다. 명징한 눈빛과, 그것을 품고도 남을 인자한 미소와 넉넉한 마음을 글 위로 다 펼치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13년 만에 신작을 내놓았다. <부러진 화살>에 이르는 여정은 어떠했나.

13년 만이라고? 글썄, 나는 영화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동안 꾸준히 작품을 준비하면서 지냈다. <아리랑>은 8년을 준비했고, 광주를 다룬 <은지화>라는 작품은 캐스팅 단계에서 잊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사극 시나리오를 하나 쓴 것이 있었는데, 제작비가 많이 필요한 작품이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성근 씨가 서형의 르포 <부러진 화살>을 건네줬다. 그걸 읽어보니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러진 화살> 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작 현상이 적잖이 낯설었겠다.

10여 년 만에 영화 현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배우 외에 현장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제작과 감독을 겸한 터라 정신이 없었다.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하게 돼 우선 미안했고, 오랜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사람과 작품을 같이해줘서 무척 고맙웠다. 초반엔 현상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금방 적응이 되고 분위기도 좋았다. 작품을 같이하다 보면 언제나 식구처럼 느끼게 된다.

석궁 사건은 TV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사건이고, 언급한 책도 나와 있다. 굳이 영화라는 옷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물론 석궁 사건은 TV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신문 지면에도 많이 실렸던, 소위 잘 알려진 사건이다. 게다가 책으로까지 나왔으니 아는 사람은 다 알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르포를 읽고 느낀 건 내가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말은 나처럼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공판집의 흥미진진함이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실존 인물의 특성이다.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진짜 재미있는 캐릭터였다. 그때 바로 '이건 영화감이다!'라고 느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칫 시류에 편승한다는 오해를 살 법하다.

그런가? 오해를 하든 말든, 솔직히 신경 쓰지 않는다.

'사법 피해'를 몸소 겪은 사람으로서 석궁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원래 권력과 개인의 자유에 관심이 많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사회에는 지배층이 존재한다. 현대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제기의 습관 같은 게 있다. 소수자 편에서 일을 하는 데서 생긴 습관인데, 그래서인지 내게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석궁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한 개인을 희생자로 만들었다. 나 자신이 재판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석궁 사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100년 전이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물하게도 21세기의 한국에서 석궁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판사가 법을 무시했으니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거다. 권력에 의한 개인의 희생은 과거에 빈번히 일어났다. 군사독재가 끝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와 자유에 별 의문을 품지 않는 것 같다. 사법부가 한 개인에게 행한 짓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까?

사건의 진실이 담긴 순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화살을 쏘았는지, 혹은 쏘지 않았는지의 여부다. 진실은 두 사람 외에 아무도 모른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나. 화살의 발사 여부는 미스터리로 남기고 싶었다. 나는 누군가의 편에 서서 <부러진 화살>을 연출하지 않았다. 다만 객관적 자료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감독이 김 교수의 편에서 있다고 느낀다면, 안성기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에 감정이 입이 돼 그런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와 박 변호사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을 보는 듯하다.

원래 진보나 보수는 어떤 가치를 향해 얼마든지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도를 두 인물에 심었다. 김 교수는 스스로 말하듯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박 변호사는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이 둘을 붙여놓은 데서 드라마가 절로 나온다.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나쁜 놈, 죽일 놈, 꼴통,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바라보는 탓에 대화 자체가 힘들다. 보수가 현재의 시스템을 깨트리지 않으려 한다면, 진보는 마음을 열어놓는 쪽이다. 서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비판해야 한다. <부러진 화살>의 결말부에서 김 교수와 박 변호사가 '국민 참여 재판'을 이야기하며 손을 잡는 것이 한 예다. 보수주의자로서 한계에 부딪힌 김 교수는 한 발 내딛게 되고, 박 변호사는 그런 그를 한수 접어준 채 받아들인다.

권력 앞에서 담담하게 맞서는 인물이 감동적이다.

김명호 교수가 그런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 그는 불평한 사람일 수도 있다. 만약 회의석상에서 그를 만난다면 거북한 상대일지도 모른다. 꼬치꼬치 따지고 들 테니까 말이다. 하



〈부러진 화살〉

지만 그런 사람이니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다.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할 때, 그 잘못을 꾸짖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도 재판을 받았지만, 피고가 판사에게 따진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판사 앞에 선 관례처럼 고개를 숙이는데, 자료 준비차 책을 읽다 판사에게 따져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김 교수가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다.

올바른 답을 지닌 김 교수에게 대가는 가혹했다. 형을 마치고 나온 그가 지금도 사법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감독님에게도 비슷한 에너지가 발견된다. 힘들 때 힘을 내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원래 권력과 개인의 자유에 관심이 많다. 사회에는 지배층이 존재한다. 현대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제기의 습관 같은 게 있다. 소수자 편에서 일을 하는 데서 생긴 습관인데, 그래서인지 내게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김 교수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본다. 원래 사람이란 게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좀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늦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런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 꼭 영화로 표현하려 애쓰기에 이르고, 그럴 때면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불안해한다. 김 교수가 날카롭게 판사와 대립각을 세울 때도 그의 가족은 마찬가지로 불안을 느꼈을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지일관이다. 몇 년 동안 가족을 고생시켰으니 보통사람 같으면 이제 가족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할 텐데, 지금도 그는 계속 투쟁 중이다.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쓰고 있다. 김 교수 같은 사람은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공존해야 한다. 철이 없는 사람,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이들이 한데 어울려야 살 만한 세상이 되고 사회도 안정된다.

드레퓔스 사건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수오 마사유키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떠올랐다.

참고삼아 여러 법정영화를 봤다. 수오 마사유키는 극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선 성격을 달리해 대중의 눈에 다소 지루하게 비친 것 같다. 나는 재미있는 법정영화를 만들려 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왜곡하고 싶지는 않았다. 배심원제도라 영상으로 표현하기에 좋은 미국 법정영화와 달리, 한국 법정에선 실제로 움직임이 적어 그대로 표현할 경우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리얼리티를 버리고 변호사의 빈번한 움직임을 담은 한국영화들을 보게 된다. 사실성이 중요했기에 〈부러진 화살〉에서는 실제 상황을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결합 같은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다큐멘터리의 느낌을 부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남부군〉 〈하얀 전쟁〉 때도 그랬거니와,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모든 영화에는 연출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사건을 영화로 옮기다 보면,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생략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다. 감옥과 법정 장면에는 픽션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기에, 카메라의 앵글을 빌려 〈부러진 화살〉의 본질이 드라마임을 드러냈다. 사전에 철저한 계산을 거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카메라의 움직임을 구사했다.

전체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건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첫 작품이다. 아직은 필름이 더 좋다. 디지털로 작업

하다 보니 현장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표현력도 필름에 비해 많이 처진다. 요즘 영화는 대부분 디지털로 찍는데, 필름이 가진 좋은 점을 다 성취하지 못한 디지털로선 갈 길이 멀다.

안성기 씨와 20년 만에 재회한 작품이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친분이 계속 이어졌기에 그와 오랜만에 작업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는 너무 착한 사람이다. 포용력이 넓고 모범적이며 보기 드문 인격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봉사를 많이 할뿐더러 영화계의 스타이면서 영화계의 굵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한다. 다시 말해 그는 김 교수처럼 활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 같은 건 결코 못할 사람이다. <부러진 화살>에서 그는 원래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김 교수가 되어야만 했다. 애초에 김 교수 역으로 그를 욕심내진 못했다. <부러진 화살>이 워낙 저예산 영화라 그를 캐스팅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주변의 부추김도 있고 해서 그를 찾아가 두 가지를 얘기했다. '출연료로 줄 돈이 부족하다'는 것과 '작품

이 정치적으로 걸끄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한 두 영화 <남부군>과 <하얀 전쟁>이 정치적 색채를 지녔으면서도 흥행에 성공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다음날, 그의 대답을 들었다.

조연들의 연기 또한 인상적이다. 문성근 씨와는 첫 작업인가.

나를 신뢰한 까닭인지 선뜻 출연해준 배우들이 고맙다. 문성근 씨와는 예전에 작품을 같이하려다 못한 적이 있다. 이번에 역할을 제의하면서 문성근 씨 실력이면 3일만 찍어도 될 거라고 말했더니 시간을 내주었다. <초록물고기>에서 그가 맡았던 배태곤 역할을 염두에 두었다. 그 인물이 나이를 먹고 먹물이 쌓이면 될 거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부러진 화살> 외에 두 편의 작품을 더 내놓았다.

<아리아리 한국영화>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영화사를 풀어보

<부러진 화살> 촬영 현장에서 안성기 등 배우들과 함께있는 정지영 감독(맨 오른쪽).



“대기업이 주도하는 영화계는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영화 외에는 대중이
보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대기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탓에 진정 의미 있는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감스럽다.”



는 작품이다. 뉴욕대 교수인 크리스틴 초이가 한국영화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교재로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작품을 봤더니 문제가 많았다. 이에 뜻을 함께한 후배 교수 허철과 2년에 걸쳐 완성했다. ‘한국영화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영화인들을 찾아 인터뷰를 했고 그것을 묶었다. 〈마스터클래스의 산책〉은 서울영상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이두용, 이장호, 박철수 감독과 내가 공동으로 참여한 음니버스 작품이다. 내가 짠 ‘이현 기자의 오디세이’는 중앙일보에 재직했던 이현 기자와의 약속을 담았다. 지면에 ‘인물 오디세이’를 진행하던 당시, 그는 내가 새 영화를 완성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부러진 화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현 기자의 오디세이’는 이현 기자 역으로 이경영이 출연해 나와 못 다한 인터뷰를 마친다는 내용이다. 〈아리ारी 한국영화〉는 내가 〈부러진 화살〉을 크랭크인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이현 기자의 오디세이〉는 〈부러진 화살〉이 완성된 이후의 시점에서 시작한다. 이번에 나온 세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창작욕이 넘치는 선배 감독들이 정작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화 제작 환경이 많이 변했음을 느낀다. 우선 실무자들이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하게 여긴다. 더 문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라며 옛 감독들의 감각을 의심하거나 감각이 없

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나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13년간 영화를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영화를 준비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실무자와 만날 길이 막혀 있다. 그런 태도가 줄곧 신인감독을 기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영화계처럼 신인감독을 죽이는 곳도 없다. 그럴 바에는 검증된 감독을 기용하는 게 나을 텐데, 왜 싹이 트는 감독을 기용해 단번에 죽이고 마는 건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인데, A급 배우의 캐스팅만으로 시나리오도 안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 망하는 영화들이 양산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영화산업이 열악하던 80년대에도 의식 있는 영화들이 대중들과 호흡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영화계는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영화 외에는 대중이 보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시나리오를 건네면 바로 취급을 받는다. 대기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탓에 진정 의미 있는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감스럽다.

젊은 관객들의 열띤 반응이 남다르게 다가오겠다.

솔직히 이런 반응이 올지 몰랐다. 내 영화를 보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듣는 게 처음이기도 하다. 예전에 성공한 작품에 대해서도 ‘의미’나 ‘감동’이 거론됐지 ‘재미’라는 말이 불러 나오진 않았다. 어쨌든 재미있다는 반응이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이다.

후배 감독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한다.

영화를 트렌드라 생각해 그것만 좇다가는 감독의 생명이 짧아진다. 트렌드를 놓치지 않되,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젊은 감독들이 영화를 잘 만들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아쉽다. 근래 선보인 한국영화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 소년의

색 소 포 니 스투 신 최 고 영 진

음악 여행

●
잡지에 쓸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신최고영진 군은 난감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작년 말 한 일간지의 인터뷰 기사에는 공연 중에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바로크 시대 궁정 뮤지션 같은 화려한 복장에 하얀 가발을 쓰고 색소폰을 불고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17세 소년 Jazz 뮤지션 되다... 색소폰 부는 고교생 신최고영진의 음악과 꿈'이었다. 열일곱살의 나이에 빅밴드의 정식 단원이 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였다. 연습 때 늘 입고 왔을 평범한 복장에 색소폰을 들고 연습실 벽을 배경으로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동안 신 군은 시선을 어디에 뒀야 할지 고민했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몇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뷰 도중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사진 찍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을 이 소년의 사진은 엄밀히 말하자면 대중에 공개된 '첫 번째 사진'인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시작'의 이미지가 아닐까? 우리 모두 많건 적건 그런 순간이 있었다. 우리가 세상을 엿보고 동경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 또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말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사회적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다소 수줍은 말투와 대화 사이의 침묵, 그럼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있는 당찬 태도 역시 그 시작의 일부일 테고 말이다.



© 재즈파크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연주할 때 자신이 잘한다는 걸 돋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과시적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프로 연주자들은 서로의 연주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앙상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연소 프로 재즈 뮤지션

‘국내 최연소 프로 재즈 뮤지션’이라는 신최고영진 군의 독특한 이력과 함께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그의 이름일 것이다(그의 예전 이름은 신진혁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정식으로 개명했어요. 어머니가 권유하셨고요. 이름을 바꿔 새롭게, 더 잘살라는 의미에서요.” 말수가 적고 수줍된 신최고영진 군이 음악교육을 위해 색소폰을 처음 잡은 것은 약 6년 전 일이다. 그는 금세 이 목직함 악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음악교육’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나는 악기는 피아노나 기타다. 사실 대부분 그걸 배운다. 색소폰을 잡게 된 계기는 뭘까? “다른 평범한 악기는 하기 싫었고 특별한 악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색소폰은 우연치 않게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음악학원을 경영하시는 부모님께서 취미로 색소폰을 연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지 색소폰의 소리가 마음에 들었고 거부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물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좋아하는 건 확실해서 더 열심히 하다가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취미가 재미가 되고, 재미가 노력이 되고, 노력이 진로가 되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아들의 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신 군의 부모는 신 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찾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사람이 현재의 스승이자 ‘재즈파크 빅밴드’의 이인관 단장이다. 이 단장은 “그 나이 치고는 잘 분다”라며

신 군의 재능을 칭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한 선생님이로서의 역할 또한 잊지 않았다. “나쁜 습관들을 바주셨어요. 잘못 배운 것들도 꽤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지적도 해주시고.” 물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다고 해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하루 서너 시간에서 많게는 일곱 시간까지 꾸준한 연습이 이어졌다. 얼마 뒤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2009년 청소년 예술제에 나가 대상을 차지했고, 이듬해에는 제2회 포천 아트밸리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1년 말 재즈파크 빅밴드에 색소폰 단원으로 합류했다. ‘국내 최연소 프로 재즈 뮤지션’이 된 것이다. 이인관 단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친구고, 경험 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경험’ 때문에 능력이 없는 뮤지션을 밴드에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주자로서 신 군의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재즈파크 빅밴드는 이인관 단장을 비롯하여 재즈 피아니스트 지나(Gina) 등의 뮤지션들을 주축으로 하는 17인조 재즈 밴드다. 스윙 시대의 전성기였던 1930년대에 성장한 빅밴드



© 재즈파크

는 듀크 엘링턴, 베니 굿맨, 글렌 밀러 등의 걸출한 아티스트들을 배출하며 1950년 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는데, 금관과 목관을 중심으로 한 호쾌하고 시원하며 다채로운 색깔의 재즈 음악을 특징으로 한다. 재즈파크 빅밴드는 2005년에 결성되었으며, 서른 번 이상의 공연을 통해 국내의 프로 빅밴드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음악단체 중 하나다.

밴드는 두 장의 EP를 거쳐 얼마 전 첫 정규 음반 〈Jazzic〉을 발표했다는데, 이 음반에는 파헬렐의 〈개논〉, 베토벤의 〈5번 교향곡〉,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Habanera), 이탈리아 가곡 〈오 솔레 미오〉(O Sole Mio) 등의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가 다양한 리듬과 춤추는 편곡을 중심으로 화사하게 변형된 채 실려 있다. 빅밴드 음악과 대중적 취향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야심 찬 시도라 할 만하다. “아마도 국내 빅밴드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젊을 것”이라고 이인관 단장은 말한다. 밴드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빅밴드’다운 왁자지껄한 활기와 열정은 아마도 그 젊음에, 그리고 각자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꾸준한 연습으로 다져진 앙상블에 빚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 군은 그 젊은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젊다. 혹시나 이들의 공연에 기본적인 있다면, 혹은 케이블TV 채널에서 밴드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신 군을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진짜’ 무대에 서 본 기분은 어떻게?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됐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여전히 열떨떨하고, 지금도 잘 믿기지 않아요. 무대에 선다는 것도, TV에서 제 모습을 본다는 것도, 프로



© 재즈파크

연주자들과 같이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요. 공연 때마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0대 색소폰니스트의 고민

다른 편성의 연주 경험은 있는지 궁금해졌다.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1년에 여덟 번 정도 공연이 있는데, 색소폰은 저 혼자라서 공연을 많이 해요. 트리오나 콰르텟은 서로 들어주면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 같은 인터플레이에서 생겨나는 매력이 있어요.” 신 군은 현재 신당동 소재의 서울실용음악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다양한 분야의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특성과 학교이며, 이미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도 재학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곳에서조차 색소폰은 드물고(신 군 이전에 졸업생이 한 명 있었고 얼마 전에 후배들이 몇 명 들어왔다고 한다.) 신 군처럼 학업과 연주를 병행하는 학생도 드물다.

공연과 수업은, 다른 말로 하자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라는 양쪽 세계를 동시에 넘나드는 입장에서 무대와 학교에서의 연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 군은 ‘앙상블’을 대하는 자세를 중요한 차이로 생각한다.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연주할 때 자신이 잘한다는 걸 돋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과시적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프로 연주자들은 서로의 연주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앙상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프로 뮤지션이 되면 가끔은 걸맞은 게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학교에서 수업받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더 배워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사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보통의 학교와는 많이 달라요. 처음 입학했을 때 시간표와 커리큘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처럼 공간도 있어서 그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룹 수업도 있고 개인 수업도 따로 있고.”

이렇게 보자면 학생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학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프로 뮤지션으로서의 경력도 시작했다. 물론 찰리 파커는 열한 살 때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다. 존 콜트레인은 열아홉 살 때 마일즈 데이비스의 쿼텟에 들어갔다. 재즈뿐 아니라 어느 예술 분야건 간에 일찍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는 이들은 많다. 그리고 그건 또래와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가장 예민한 시기인 10대 시절 그 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중학교 때 친구

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와는 다른 것 같고, 외롭다는 건 아니에요. 만나면 잘 놀고 친구들과 있는 것이 즐겁기는 한데...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공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더 나아가 학교 안에서도 신 군의 취향은 ‘소수파’에 속한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을뿐더러 신 군이 이른바 ‘정통’ 재즈에 관심이 많은 반면 학교 안에서 인기 있는 것은 티스퀘어 등의 ‘퓨전’ 계열, 또는 ‘핑키한 비트를 가진 팝’ 계열의 음악이다. 신 군 역시 학교 공연 때는 그런 쪽의 연주를 많이 했다.

“실력에 대한 소문에 맞는 연주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데 잘한다, 신동이다, 그런 소문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연주하는 거요. 실력이 그만큼 따라오는 거. 실력으로 인정받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퓨전 재즈도 했고요, 보컬 뒤에서 건반과 같이 연주도 해봤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빅밴드 음악에 대한 관심 역시 적을 수밖에 없다. 빅밴드 공연 때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으며 내심 마음 아팠던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고민으로 다시 돌아간다.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힘들게 이려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생각이 많죠.” 그럴 때 의지가 되는 건 주변의 선배 연주자들과 친구들이다. 음악적인 고민뿐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조언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답을 찾고자 한다. “오히려 부모님과과는 대화를 덜 하게 됐어요. 연습과 합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남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신 군을 보고 있으면 결국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땃땃한 연주자가 되고 싶다

신 군이 생각하는 재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걸까. “직접 음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운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런데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파면 팔수록 매력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양파 같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눈물도 흘리지 않을까? 그렇게 묻자 웃으면서 대답한다. “네. 까면 갈수록 새로운 느낌이 드는 음악이에요.” 좋아하는 뮤지션은? “예전에도 말했는데 찰리 파커와 데이비드 샌본을 좋아해요. 그 외에도 색소폰 연주자는 가리지 않고 다 듣고요. 피아노는 칩 코리아 같은 뮤지션을 좋아하고요.”

신 군과의 이야기 중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음악을 듣는 방식이었다. “유튜브를 자주 활용해요. 라이브 공연은 거의 다 유튜브에서 찾아서 봐요. 거기 공연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깐.” 직접 공연장을 찾아다니며 그곳의 공기를 느끼는 것도 공부 혹은 ‘수련’의 일부겠지만, 생각해보면 유튜브만큼 무궁무진한 ‘아카이브’는 없을 것이다. 신 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TV를 보는 동안 컴퓨터 모니터의 커서가 어디 있는지 찾았다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좋은 뮤지션이 되는 길은 꾸준한 연습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신 군의 하루 역시 연습과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방학이라서 좀 시간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가서 밤 10시나 11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연습하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땃땃한 연주자요.” 무슨 의미일까? “실력에 대한 소문에 맞는 연주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데 잘한다, 신동이다, 그런 소문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연주하는 거요. 실력이 그만큼 따라오는 거. 실력으로 인정받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질문을 던져봤다. 찰리 파커와 데이비드 샌본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뮤지션들은 재즈 연주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가 이른바 ‘정통 중의 정통’으로 재즈의 역사에 우뚝 서 있다면 후자는 보다 ‘대중적’인 영역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룬 음악적 스펙트럼에 발을 걸치고 있다. 아직 이른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둘 중에 궁극적으로 가 닿고 싶은 방향이 있는지? 간명하면서도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다. “사실 둘 다 하고 싶어요. 샌본 같은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끌리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통’쪽에 보다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그쪽을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을 더 충실히 익히고 싶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마지막 질문. 음악이 자신을 바꾼 것이 있을까? “학교 다닐 때는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어요. 친해지면 말이 많은데 모르는 집단에는 ‘적응력’이 낮은 편이었고. 음악을 시작하면서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나서려고 하고,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 군이 대답하는 동안 그가 ‘양상블’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재즈를 연주한다는 것은 타인과 언어 이상의 교감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때로 더 나은 사람으로, 혹은 주변인들에게 더 충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의 세계로 깊이 침잠하는 예술가 역시 수없이 많지만 말이다. 신최고영진이 그중 어떤 뮤지션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아직 그의 진짜 음악이라 할 만한 것을 듣지 못했다. 선택은 무궁무진하다. 심지어 그 선택 중에는 음악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색소폰을 들고 더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가 그 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며 욕심껏 빨아들이고 돌아올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직한 연주자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문화 가수 헤라

아름다운 그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은 여전히 약자이거나, 혹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통한다. 하지만 가수 헤라는 한국다문화예술원, 세계다문화예술단 등 다문화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을 돕고 있다. 서울의 그림 같은 모습에 반해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한, 미의 여신을 뜻하는 이름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다운 중국 출신 귀화 가수 헤라를 만났다.

● 17세 때부터 중국 국립가무단에서 활동하신 걸로 압니다. 국립가무단이란 어떤 단체인가요?

이름 그대로 가무, 즉 음악과 무용을 공연하는 단체예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말하자면 연예인 공무원인 셈이죠. 연예인을 꿈꾸는 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곳인데, 전 17세 때 특채로 발탁 됐어요. 전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전 그곳에서 3개월 만에 마이크를 잡고 공연을 했고,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단독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합숙 훈련과 엄격한 규정, 또 몇 개월간 이어지는 순회공연이 어린 나이로 감당하기 힘들기도 했지만 그 때 배운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의 연예 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가수, 혹은 연예인에 대한 꿈이 있으셨던 건가요?

연예인이 꿈이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스스로를 당연히 연예인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걸 좋아했고 노래와 춤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뛰어나다고 자부했으니까요. 바이올린, 아코디언,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기도 했지만 노래와 춤만큼 제 마음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992년, 한 기업의 초청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됐어요. 그때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자동차를 타고 한강을 지나가는데, 마침 계절



이 봄이라 벚꽃이 만발한 한강의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림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산과 강, 그리고 시끌벅적한 도시의 이미지가 어우러진 모습이 무척 신기했어요. 제가 중국 심양 출신인데 심양에는 인공운하만 있고 진짜 강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명산지가 많긴 하지만 이처럼 대도시 속에 산이 자리하지도 않고요. 그때 서울의 모습의 반해 한국을 드나들기 시작한 거죠. 당시 비자가 7일짜리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짧은 비자를 연장해가면서 한국을 오가곤 했어요.

중국인 가수로도 충분히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귀화를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중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번번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귀찮기도 했고요. 또 당시 〈가요무대〉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방



송을 통해 손목인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목포의 눈물〉 〈아빠의 청춘〉 등을 작곡한 그 손목인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욕심이 생겼고 그러면서 완전히 귀화를 결심하게 됐어요.

처음 한국으로 귀화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는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함께 일했던 회사 사장님은 너무 좋은 것만 보여준 것이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요. 또 집안에서 제가 막내다 보니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하지만 제 뜻이 워낙 완고해 결국 아무도 말릴 수 없었죠. 한테 몇 년 후에 한국으로 관광 온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63빌딩이 바라보이는 한강을 보며 기뻐하시더니, 당신이 젊기만 하다면 이런 멋진 곳에서 사는 일을 한 번쯤은 도전해봤을 거라고요.

귀화 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손목인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엔카로 일본 데뷔를 준비하던 중 선생님이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선생님을 잃은 슬픔에 생활고까지 더해져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프고 차비가 없어 걸어가야 하는 상황을 처음으로 맞이했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결국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를 믿어준 어머니 덕에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에 1집 앨범을 발매하면서 정식으로 데뷔하셨죠. 앨범을 준비하면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나요?

처음 녹음한 앨범을 들고 방송국에 찾아갔는데, 하나 같이 하는 소리가 발음 때문에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절대 발음에 관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에게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한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언어치료를 찾아갔는데, 제 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혀가 기형이라 선천적으로 발음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언어치료사로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교정을 위해 혀를 칫솔로 문지르고 혀에 링을 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 달 만에 8kg이 빠질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죠. 언어치료는 끝났지만 현재에도 뉴스를 틀어놓고 따라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85% 정도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다고 자부해요.

한국다문화예술원 원장, 세계다문화예술단 예술감독 등 다문화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국다문화예술원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말하자면 140만 다문화 가족들의 친목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문화 농장을 함께 경영하면서 친목을 쌓고, 또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어요. 지금껏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정부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 돈으로 기부하는 못하더라도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해 잔치를 열거나 병원에서 위문공연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경남세계다문화예술제를 열어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세계다문화예술단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끼를 감추고 있는 다문화인을 발굴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또 저처럼 가수나 연예인이 되고 싶은 다문화인들에게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닫게 된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싶었고요. 다문화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성공하기

한국 생활에 정착하고 연예인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 노력을 누군가가 알아주리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혼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인정해주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작은 성공에 안주하기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문화 예술인을 키우고자 시
작하게 됐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이버 멘토링의 대표 멘토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위촉식에서 눈물 흘리시는 사진을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그때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촉장을 받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는
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소감은 생각이 안 나고 그저 눈물만 흘러
나오더라고요. 한국 생활에 정착하고 연예인으로서 자리 잡기 위
해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 노력을 누군가가 알아주거
나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혼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인정해주니까 정말 기
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소감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채
고맙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말았죠.

사이버 멘토링 대표 멘토로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멘토링은 일대일로 진행되는데, 저는 주로 다문화인 위주로 상담
해주고 있어요.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조언해주죠. 한국문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
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거부하기보다는 무조건 이해하려는 노
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니까요.

얼마 전 월간 문학세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셨죠. 다문화인 최초의 신인문학

상 수상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라디오에서 중국문화에 관한 코너를 고정으로 진행하면서 6개월
간 방송대본을 직접 써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
라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기만 했는데, 함께 방송하는 작가에게
배워가며 쓰다 보니 글 쓰는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시
를 쓸 용기가 생겨났고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요즘 마음에 닿으면 바로 나오는 게 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시는 모두 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한국에 처음 왔
을 때 마주했던 한강, 영원한 저의 멘토인 어머니, 내 인생의 울타
리가 되어주는 다문화 단체 등 시를 쓴다는 생각보다 제 인생을
정리해봐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써 내려갔어요. 머리보다는 가
슴으로 쓴 시라고 할 수 있죠.

**3집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그리고 꿈은 무
엇인가요?**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이 될 〈가리베가스〉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
요. 장윤정의 〈어머나〉, 이루의 〈까만 안경〉 등을 만든 윤명선 작
곡가가 작곡한 곡이에요. 오랜만에 발표하는 앨범이니만큼 정말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음반 발표 후
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할 계획이고요. 저는 늘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은 걸 거예요. 영원히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
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글 윤현영 여행 잡지 기사를 거쳐 현재는 독립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시골벽적인 도시의 다채로운 모습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좋아한다.

사진 백중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진가다.



문화 서울

스마트하게 즐기기

다양한 문화정보를 공유하는 서울문화재단 '모바일 서비스'



대학로를 찾는 시민들의 공연 길라잡이
대학로공연정보 앱(App)



서울의 작고 알찬 무료 문화행사가 한곳에
무료문화정보 앱(App)



서울문화재단 모바일 서비스는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제공되며,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대학로공연정보 및 무료문화정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모바일 서비스 홈페이지 app.sfac.or.kr



Hi Seoul
SOUL OF ASIA

CREATIVE
SEOUL

서울문화재단

나는 홍대가 좋다

인디라이터 명로진의 홍대 찬가



나는 무작정 홍대가 좋은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 홍익대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서교동 일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왜?

일단 내 집필실이 이곳에 있다. 나는 1999년 신설동에 처음 집필실을 열었다. 2000년부터 5년 동안은 서강대 옆의 노고산동에서 글을 썼다. 2007년에 홍대 인근에서 가장 번잡하다는 피카소 거리 곱창골목의 호미화방 건물 6층에 터를 잡았다. 세 곳 중에 지금 있는 곳이 가장 마음에 든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관리인 아저씨는 이렇게 물었다. “그래, 뭘 하슈? 그림이유, 음악이유?” 아하. 난 이런 분위기가 참 좋다. “네. 저는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MC도 보고 하여간 돈 주면 뭐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아저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린 뒤였다.

내가 있는 건물은 20년도 더 된 오래된 곳인데, 홍익대를

다니면서 이곳에서 자취를 시작한 사람이 홍익대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곳을 아틀리에로 쓰고 있을 정도다. 옆방에는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늘 화음이 들린다. 앞방은 피아니스트가 쓰고 있는데 가끔 아마하 피아노의 낭랑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우리 층에는 디자이너들, 화가들, 미대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들이 발산하는 예술적인 에너지가 늘 나를 즐겁게 한다.

우리 건물에는 꽃집 아가씨와 문신 새기는 사람도 산다. 여자 후배 한 명이 이혼의 상처를 안고 문신을 새기러 왔는데, 그 후배는 자신을 보고 느껴지는 걸 문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타투리스트는 날개 잃은 천사를 그려줬다. 후배는 “그 사람은 차라리 점집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 지하 1층에는 재래식 시장이 있다. 나는 가끔 이곳에서 쇼핑을 한다. 3,000원짜리 김밥도 사먹고, 떡도 사먹고, 해산물도 사곤 한다. 지하 2층에는 오래된 사우나가 있었는데 2년 전 문을 닫았다. 한동안 비어 있더니, 누군가 거기다 미술관을 만들었다. 이제 그 미술관은 망했다 싶었다. 정말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사람보다 파리가 더 많았다. 지금은 주중에는 어린이들이, 주말에는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몰



려온다. 어린이들은 미술관을 구경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완전 대박!”

6층에서 내려다보면, 이곳은 커플의 천국이다. 홍대 앞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90%는 20~30대 젊은이들이고, 그들 중 또 90%는 커플이다. 젊은 연인들이 우루루 몰려다니는 까닭에 그들이 내뿜는 사랑의 열기가 늘 나를 달뜨게 한다. 커플들이 많으니 그들이 갈 곳도 많다. 반경 100m 안에 국내외 커피 브랜드가 수십 개도 넘는다. 카페, 음식점, 노래방, DVD방, 술집이 차고 넘친다. 탕고만 추는 밀롱가도 있고 살사와 메렝게가 흥겨운 라틴 바도 몇 개나 된다.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한 이들을 위한 사주 카페와 타로 점집들도 있다. 연인들은 이곳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그리고 타로 점을 친다. 점쟁이가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면 행복해하며 또 어딘가로 간다. 자정 무렵 홍대는 프리 히그를 하는 남녀로 넘쳐난다. 늦은 밤, 홍대에서 포옹하는 남녀들이 안쓰러울 때면 나는 내 작은 방이라도 내어주고 싶었다.

홍대 앞에는 단지 먹고 마시는 곳만 있는 게 아니다. 갤러리와 소극장, 영화관, 전시장도 꽤 된다. 홍대 앞에 산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넘쳐난다. 난타 공연장도 있고 드라마 촬영 장소도 있다. 얼마 전 나는 홍대 전철역 앞에서 해매는 다섯 명의 싱가포르인 가족을 친절하게도 커피 프린스까지 직접 안내해준 적이 있다.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홍대 홍보대사라도 된 듯 착각했나보다.

세 명의 아들딸은 한류 팬이었다. 커피 프린스를 보더니 “드라마에 나온 곳이다”라며 흥분했다. 50대의 가장은 내게 커피를 대접해줬다. 그의 부인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싶어하지 않았다. “여섯 명이 들어오면 무조건 여섯 잔의 차를 마셔야 한다”는 카페 종업원의 권고에 내가 껴려보며 “다섯 잔만 주시지”라고 말했다. 종업원은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나를 보고 ‘아, 바가지가 통하지 않겠구나’ 하는 표정으로 물러가 다섯 잔의 차를 가져왔다.

잠복근무는 이제 그만

여름밤이면 홍대 앞 놀이터와 피카소 거리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글을 쓰다 저녁을 먹고 어슬렁거리다 보면 인디밴드, 탭 댄서, 아카펠라 그룹 등 다채로운 멤버들의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다. 인디밴드의 노래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30분쯤 듣다 보면 라이브의 감흥에 빠져들고 만다. 공연장에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다양한 언어로 속삭인다. 살아 있는 음악과 타국의 언어들이 섞여 들릴 때 나는 흥분제라도 복용한 듯 설렌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이곳은, 클럽 마니아들이 점령한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이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 온 뒤로 1년에 한 번씩 최대한 짧은 척(!)하면서 클럽에 들어갔다. 그곳에 가서 뭘 즐기려는 게 아니라, ‘과연 나를 들여보내 줄까’ 하는 심산에서다. 그곳에 갈 때는 스키니 진과 몸에 꼭 맞는 아르마니 재킷, 스판 라운드 티를 입는다. 너무 반짝거리지 않는 구두와 튀지 않는 목걸이, 크리스찬 디올의 파렌하이트 향수와 가죽 손목 띠, 그리고... 약간 의비비크림이 필요하다. 조마조마하게 클럽 뒷줄에서 있다가 클럽 입장이 허용되면 ‘아,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한다. 그리고 클럽에 들어가서 음악을 좀 듣고 데킬라 한 잔을 마시고 나오는 거다. 헤드뱅잉? 에이, 그런 건 못한다. 잘 못하다 목 디스크 걸리면 큰일이다. 2010년까지, 나의 클럽 잠행은 성공이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클럽 문지기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저기요, 아저씨. 이제 성인 나이트로 가세요.” 아, 잠복근무는 이제 그만. 나는 이렇게 젊음의 거리에서 거부당하고 말았다.



진짜로
일어날 거야, **기적**

문화예술 분야의 모금과 기부가 확대되려면...

2011년 문화예술계 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기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과 정부 지원 확대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다고 낙담했던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일반인의 참여(소액기부와 투자, SNS 참여 등)라는 의미 있는 진전이 보였다는 점이다. 그 구체적 현상으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유행, 문화와 복지의 접목 시도, 문화예술 전문 모금 교육의 진행, 대중문화(특히 가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참여 증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는 기존의 문화예술계가 추진해왔던 세제개편 등의 실효성 없는 비현실적인 노력보다 매우 건설적이고 고무적인 것이며, 어쩌면 문화예술계의 기부 문화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2 트렌드 키워드〉(미래의창 펴냄)에도 소개된 크라우드 펀딩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소규모의 기부, 후원, 투자 약정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얻어내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 미미한 액수의 자금이 후원되는 마이너 방식이고 창작자나 창작단체의 ‘그들만의 리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하나의 대안적 또는 추가적 모금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소셜한 펀딩 방식이 관심을 끄는 것은 해외의 사례(미국의 kick starter나 indigogo 등)가 보여준 성공에 대한 확신에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투자, 후원 마인드 확대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다. 양질의 콘텐츠는 가지고 있으나 실현할 수 있는 적은 자본마저 없어 꿈을 접어야 했던 예술가, 예술단체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작품과 생각을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갈라, 세바쿠, 디스이즈트루 스토리, 엔클코리아, 콘크리트, 펀뒤, 텀블벅, 업스타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등 10여 개 단체 또는 기업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몇몇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돈이 필요한 창작자 개인이나 단체의 관심이 클 뿐, 정작 후원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나 지인의 쌈짓돈을 털어 10%의 수수료를 내면서 다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여 마치 흡소퐁처럼 판매가 아니라 홍보를 위해 업로드한다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어쩌 보면 복지의 영역과는 달리 창작자들의

‘특별함’과 ‘꿈’을 응원하고 그 창작 역량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던 전통문화 후원자 기부 방식의 현대적 발현일 수도 있다. 문화예술 기부의 한계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기부 욕구를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을 꾸준히 연구한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에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다.

‘엘 시스템아’가 보여준 중요한 변화

빈곤 청소년들을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가로 육성시킨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가 한국에 상륙했다. 엘 시스템아의 등장과 더불어 복지의 영역, 특히 소외 청소년이라는 주제

- 1 기부된 ‘2010년 나이키휴먼레이스서울’ 참가비는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씨앗나눔〉 분야에 선정된 저소득가정 자녀의 순수예술 교육비로 사용됐다.
- 2 빈곤 청소년들을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가로 육성시킨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 © 크레디아





개인의 기부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자 아이덴티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부 상품을 개발해나가면 좋을 듯하다. 단순한 기부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공익사업에 자금을 투여하고 싶은 고학력, 중산층, 젊은 기부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들에게 '앞서 가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에 기부한다는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와 예술이 연결되어 어떤 사회적, 개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볼 수 있었다. 여전히 소외계층의 의식주 문제는 문화예술 분야를 앞서는 강력한 사회적 명분이지만 이 강력함에 대해 질투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접목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례는 문화예술 모금과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의 복지와 예술을 연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영역이 다른 분야와 결합하면 대중에게 부족했던 모금의 명분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출현이다. 이 역시 비즈니스와 문화, 교육과 문화, 지역과 문화,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융합을 통해 문화예술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모금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문화예술 단체 사람들의 참석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금에 대해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치중 확보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모집 전문가 강좌,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원조성 컨퍼런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등에 신청이 쇄도했고, 참여자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문화예술 분야 모금에 대한 강요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국내에서의 성공사례였다. 적은 인원과 부족한 예산,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나름의 성공을 이뤄낸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강의를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벽천 과제라고 느끼는 듯했다. 물론 모금이라는 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계가 합심하여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며 발전시켜나가는 틀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했다.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고 많은 이들이 모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모두가 모금활동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자신이 모금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즉, 당장의 자금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문화예술 분야 모금에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관심이 오래 유지되거나 개인과 단체의 모금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모금에 비전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을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모금 컨설팅 및 대행업체, 관련 전문 아카이브 등의 모금 생태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민관학기(民官學企)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12년의 문화예술 관련 모금 상황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경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숨 가쁜 국내 정치 일정도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들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는 약 5~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들 역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 지출이니, 2012년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관련 기부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모금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개인과 기업 기부에 대해 하나씩만 들고자 한다.

공짜는 없다! 주어야 얻는다

개인의 기부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자 아이덴티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부 상품을 개발해나가면 좋을 듯하다. 근래 나타나고 있는 기부 트렌드 중 '사회적 투자'라

- 1 디스이즈트루스토리의 Free Letter 프로젝트
© 디스이즈트루스토리
(www.thisistruestory.co.kr)
- 2 소셜 벤처투자 Sopoong 주최의 안내투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업스타트'의 인창업
준비생들. © 업스타트(www.upstart.kr)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크라우드 펀딩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는 개념이 있다. 단순한 기부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공익사업에 자금을 투여하고 싶은 고학력, 중산층, 젊은 기부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트렌드이다. 여기에 문화예술 분야도 그들에게 '앞서 가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에 기부한다'는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소외계층에게 의식주를 기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단기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 분야에 대한 기부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젊고 세련된 중산층이라면 장기적 이익이 나타나는 상품에 분산투자(포트폴리오 투자)하듯 기부 역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에 기부한다면 창작자들과 그 작품을 지원하면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와 소통 채널을 통해 생활이 다채롭고 트렌디해질 것이다. 앞서 가는 이들에게 문화는 필수이다"라고 접근해본다면 어떨까.

기업들의 문화예술 기부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예술단체 창작 지원이나 지역사회 문화 공헌,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CSR) 차원과 스폰서십이나 아트마케팅, 문화 제품 개발 등의 기업 마케팅전략 차원의 접근, 기업문화나 사원복지 등에 문화를 접목하고 활용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기업들에게 문화예술 지원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분야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제품이나 업태, CSR 방향과 일치하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도 훌륭한 사회공헌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획, 제안 능력이 있어야 하

며, 진정으로 기업의 문화적 수요(어쩌면 자신들도 잘 모르는)를 장기적·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채워주고 살피주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뤄나가는 접근도 있어야 한다. 해당 기업 동아리들의 창작교실을 같이 운영하고, 식당과 사업장의 음악을 선곡해주며, 임직원들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건설팅하면서 맺은 관계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업과 직원들의 기부활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주어야 얻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상식은 모금 활동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진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 소셜펀딩 국내사이트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http://www.socialants.org
갈라	http://www.galaaaa.com
세바쿠	http://sebacou.com
디스이즈트루스토리	http://www.thisistruestory.co.kr
엔클코리아	http://www.ancikorea.com
콘크리트	http://co-up.com
펀두	http://www.fundu.co.kr
텀블벅	https://www.tumblbug.com
업스타트	http://www.upstart.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http://fund.arko.or.kr

▶ 소셜펀딩 해외사이트

kickstarter(킵스타터)	www.kickstarter.com
인디고고(indiegogo)	www.indiegogo.com

스마트폰에서 만화 안 보니?

만화와 독자가
가장 간편하게 만나는 스마툰 혁명



디지털 만화, 스마트폰 만화, 앱 만화, 스마툰, 패드툰, 탭툰, 웹툰, e-book, 비스비슷한 용어가 한가득이다.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저 복잡한 용어들은 모두 책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서 보는 만화를 부르는 말이다. 그냥 편하게 하나로 통일해줬으면 좋겠는데, 디지털 기기도 여러 가지고 거기에 만화를 서비스하는 업체도 다 다르니 하나로 쉬 통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위에 소개한 용어들 중 같고 다른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

책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서 보는 만화를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디지털 만화다. 디지털 만화는 디지털로 만들어서, 디지털로 유통하고, 디지털로 소비하는 만화를 말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디지털 만화는 인터넷에 접속해 보는 만화들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해 보는 만화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 책으로 나온 만화를 스캔(디지털화)해서 별도의 브라우저를 띄워 보는 만화가 있고, 게시판에 접속해 스크롤하며 보는 만화가 있다. 작년 여름 화제가 된 '봉천동 귀신'처럼 플래시 등을 활용해 움직임이나 소리를 집어넣은 만화도 있다.

90년대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 만화를 본다는 건 그다지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는 주로 CD-ROM 등의 저장매체에 스캔한 만화를 담아 보기 좋게 편집

해두었다. 미국과 일본은 고성능, 대용량 저장장치를 활용해 만화에 효과(음성, 동작 등)를 준 작품들을 CD-ROM에 담았는데, 1995년 출시된 테라사와 부이치의 폴 컬러 디지털 만화 <더 사이코간>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경우 <해비메탈>에서 1995년 3D그래픽을 도입한 만화 <싱카(Sinkha)>를 CD-ROM에 담아 발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작가인 마르코 파트리토(Marco Patrito)의 사실적인 3D그래픽은 발표 당시 화제를 모았고, 1996년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철수, 신문수, 박원빈, 이현세, 박봉성, 이재학, 고유성, 박원빈 등의 작품이 CD-ROM에 담겨 출시되었다. CD-ROM에 담긴 만화는 PC에서 책의 느낌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동 책장 넘기기, 확대해서 보기, 책장 넘기는 소리 등의 기능이 있었지만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후 2000년 조이코믹스가 임재원의 <짱>

전세훈의 〈슈팅〉 등을 통해 출판만화의 CD를 통한 저장과 유통을 재시도했으나 역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디지털 만화는 인터넷, CD-ROM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서비스되었다. 출판이나 영화 같은 전통 미디어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에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서비스된다. 인터넷에는 만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가게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멀티 플랫폼의 시대가 되면서 만화가 담기는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e-book이 등장하고, e-book을 볼 수 있는 리더기가 나왔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가공된 만화가 다시 e-book 리더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재편집되었다. 미국의 온라인서점 아마존이 킨들을 출시하며 e-book 리더기가 돌풍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찻잔 속 태풍이었다. 게다가 전자잉크기술을 도입한 e-book 리더기는 흑백으로 표현됐고, 해상도도 높지 않아 섬세한 그림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행복한 스마트 시대

2007년 6월 29일, 미국 애플 스토어 앞에는 애플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사기 위해 밤을 샌 사람들

이 한가득이었다. 아이폰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날 이후 아이폰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비즈니스맨이나 쓰는 것으로 생각했던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2011년 기준 아이폰 누적 판매량은 1억 대!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8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뒤늦게 아이폰이 출시되었지만 2009년 12월 80만 명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만에 3배가 성장해 247만 명을 기록했다. 다시 6개월 만에 3배가 성장한 722만 명, 그리고 2011년 7월 1천 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 1억 명, 우리나라만 해도 3,000만 명이 무언가를 다운받아 사용할 준비가 된 셈이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은 컴퓨터가 들어 있는 전화기로, 사용자가 여러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를 구매해 설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성공은 다른 스마트 기기를 만들었다. 아이패드, 갤럭시 탭, 킨들 파이어 등 7~10인치 내외의 책이나 잡지,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나왔다. 스마트 PC, 스마트 패드, 스마트 태블릿 등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인터넷에 접속해 애플리케이션이나 책, 음악, 영화, 게임 등을 구매해 소비하는 간편한 디지털 소비기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전자책 단말기(킨들, 누크 등), 게임기(닌텐도, PSP),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개인용 멀티미디어 재생기기인 PMP, 음악을 듣는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네비게이션을 모두 각각 구입했지만 이제는 스마트 기기 하나면 끝! 이 똑똑한 기제는 곧 TV까지 집어삼키고 가전제품 전체를 통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야말로 스마트 혁명! 개별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에는 재앙일 스마트 혁명이지만 만화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1·2·3 아이패드용 만화 앱
4·5 다양한 만화 앱들.
6 앱 내 결제가 가능한 올레만화.



축복이었다.

가장 발 빠른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디지털 만화 회사였던 코믹솔로지(comixology)는 만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미국의 거대 출판사인 마블(Marvel), 디씨(DC) 등과 제휴를 맺어 만화 앱을 출시했다. 2009년 900만 달러로 시작된 디지털 만화 시장은 2010년 1천 800만 달러로 급성장했다. 심지어 몇 년 안에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아이버스Veres의 CEO 마이클 퍼피)도 있다. 이런 가파른 성장세에 놀란 마블과 디씨 등은 2011년 디지털 만화가 오프라인 만화의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출판만화와 디지털 만화의 동시 발행에 나섰다.

2011년 9월부터 신간만화가 출시되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전체 앱 매출 1위에 올라섰다(책 카테고리에서는 늘 1등이었다). 아이패드 앱에서 자신감을 얻은 코믹솔로지는 2011년 10월 11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만화를 읽을 수 있게 한 통합 아이디 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코믹솔로지의 성공에 자극 받은 아마존은 7인치 스마트 태블릿을 출시하면서 과감하게 디씨의 만화를 공급하기로 했다. 거대한 미국시장에서 독자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힘들어 주춤했던 일본만화 역시 스마트 태블릿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성기 때 50만 부, 매주 12만 부 가량을 출간하던 <소년점프 USA>는 오프라인 출판을 접고 앱 잡지로 전환했다. 오프라인 잡지의 디지털 전환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용감소를 위한 교육지책으로 진행되었지만(오프라인에서 웹으로 전환), 미국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의 방법으로 진행 중이다. 일본만화를 보고 싶은 독자들은 자유롭게 앱을 실

행해 만화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의 한정된 팬들보다 더 많은 만화 팬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패드의 일본만화 앱은 2011년 책 카테고리에서 100위 권으로 진입하더니,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 20위 권으로 올라서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불과 1~2년 사이에 벌어진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 미국 ICv2 대표 밀튼 그랩은 지난 8월 1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N-스크린 만화콘텐츠 유통전략 컨퍼런스'에서 "ICv2에서 볼 때 사업 기회는 상당히 활발하다. 만화는 음악, 영화, TV 또는 비디오 게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장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출판물을 구매하는 고객이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 만화가 만화시장을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화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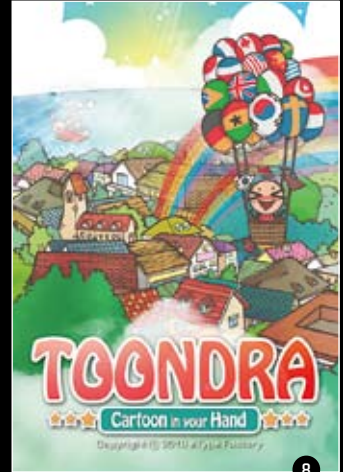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스마트폰, 스마트 태블릿 환경은 만화작가, 출판사, 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축복이었다. 작가와 출판사는 한정된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벗어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한 수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만화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는 보고 싶은 만화를 편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한국만화는 스마트폰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가장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를 계속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1 만화 앱으로 보는 <몬스터즈>
2·3·4·5·6·7·8 다양한 만화 앱들.



있게 되었다. 모두의 요구와 이익이 잘 맞아 떨어진 행복한 스마트 혁명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즐길 준비 끝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앱 스토어에 등록된 만화 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앱 내 결제가 가능한 앱과 그렇지 않은 앱이다. 앱 내 결제가 가능한 앱은 앱을 다운받고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작품을 계속 추가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앱은 앱을 다운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나라 만화 앱은 2011년 초창기 일반 휴대폰에서 서비스된 성인만화를 앱으로 변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학습만화 앱이 등장했고, 앱 내 결제가 가능한 앱들이 나왔다. 앱 내 결제가 가능한 것은 네이버북스와 다음만화, 올레만화, 톤드라, 케이코믹스 등이다.

가장 발 빠르게 앞서 나간 곳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아이폰 출시 이전 2009년 6월 아이팟터치용 네이버웹툰 앱을 출시한 바 있고, 2011년 아이폰용 및 안드로이드용 네이버 웹툰 앱을 출시했다. 연이어 네이버북스 앱을 안드로이드이

드와 iOS용으로 출시해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모바일과 PC를 오가며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몹시 불편하다. 웹으로 네이버 북스 스토어에 접속해 유료결제를 한 후 다시 앱을 실행해 결제한 작품을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앱은 아직까지 뷰어의 역할만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음만화는 다음 앱을 출시하고 의욕적으로 패드툰이라는 스마트 태블릿 전용 만화를 개발, 탑재해 차별화를 꾀했지만 이후 특별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앱 내 결제가 가능한 앱들 중 올레만화는 기존 웹에서 서비스되던 올레만화(출판만화의 웹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로 옮겨와 서비스하고 있고, 톤드라 역시 기존 출판만화를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케이코믹스는 아직 파일 사이즈나 운영 면에서 여러 문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보자면 좀 실망스럽겠지만, 아직 실망은 이르다. '식빵고양이'처럼 잘 만들어진 단권 앱(만화 한 작품이 한 앱으로 발행되는 앱)이나 '궁'처럼 경쟁력 있는 만화 앱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만화 앱으로 국경을 넘는 글로벌 프로젝트도 준비되고 있다. 2012년 한국만화는 스마트폰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가장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만화와 영상, 음악, 게임, 교육 등이 만나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한국만화, 그리고 스마트폰은 여러분께 묻는다. "이제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青春

달려라,

청춘

신 (新) 청 춘 열 풍

© 한겨레



무릇 이름은 항상 품격과 세련됨을 담고 있다. 비록 지금은 촌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나름 첨단을 달리는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청춘(靑春)'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다. 1914년, 문예잡지 <청춘>은 신(新) 문화의 상징이었다. 영화 <맨발의 청춘>까지만 해도 최고 호감의 단어였다. 하지만 어느새 한자어를 섞어 쓰는 것은 촌스러워졌고, 영어식 조어법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특히 '춘'이라는 단어는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촌스럽게 받아들여졌다. 1994년 MBC <서울의 달>에서 춘섭이는 순박한 시골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촌스러운 캐릭터로 그려졌다. '춘'자가 들어간 사람의 이름은 곧 주인공에서 멸종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춘이라는 단어도 각광받는 사회문화 트렌드에서 사라졌다. 그것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었으며 항상 과거형이었다.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신세대, X세대, I세대 같은 단어들이 더 각광받았다. '청춘세대'는 영 어색했다. '언제나 마음은 청춘'이라는 문구 같은 데서만 살아남았는데, 주로 예전 세대에만 소구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젊은이에게 사용되어도 '불쌍한 청춘'과 같이 비하, 자학적인 어감을 주었다. 그러던 청춘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청춘, 부활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 특별한 계기가 작동했다. 2009년 KBS <청춘불패>에서는 걸 그룹 멤버 7명이 이색 도전에 나섰다. 그 이색 도전은 시골로 내려가 농장을 개간하고 가꾸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항상 카메라 앞에서 이미지 생성의 활동만 했던 그들이 육체노동을 감행하는 것은 분명 도전이라고 할 만했다. 실제로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성취를 이루어냈다. 이 때문인지 반응이 좋았고 이후에 두 번째 시즌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청춘이라는 단어와 걸 그룹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더 이상 청춘은 낡은 것이 아니었다.

이 프로그램이 종영할 즈음인 2010년 말, 한권의 책이 출판됐다. 이 책은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였다. 내용도 이전에 나온 책들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무엇보다 '청춘'이라는 단어를 크게 부활시켰다. 바로 <아프니까 청춘이다>다. 이 책은 2011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면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이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젊은 층의 현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파편화되거나 어떤 특정 명칭으로 하나의 세대로 규정되는 이들이 아니라 아파하는 청춘이었다. 청춘의 주인공들은 걸 그룹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이었다. 몇 개월 뒤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안철수 교수는 '청춘 콘서트'를 연다. 이 콘서트는 말이 중심인 토크 콘서트였다. 이 청춘 콘서트는 다른 토크 콘서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많은 정치인들과 사회 리더들이 이 청춘 콘서트의 형식을 빌어서 공연장에 들어섰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청춘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청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출판물과 공연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제는 하나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예전 작품이나 콘텐츠까지도 다시 불러오는 효과를 일으켰다. 가히 '신(新) 청춘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동안 중심에서 밀려났던 청춘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이는 단지 지금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대를 관통하는 화두로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새로운 단어와 말들은 오늘도 수없이 만들어지거나 조합된다. 그럼에도 어떤 것은 지속성을 갖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 1 직접 대면의 콘서트 형식으로 청춘과 소통한 청춘 콘서트
- 2·3 <청춘불패>는 '청춘'이라는 단어와 걸 그룹의 조합으로 묘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 한국방송
- 4 '청춘'이라는 단어를 부활시킨 <아프니까 청춘이다>.

- 1 <88만원 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달리 청춘을 향해 우울한 예언을 전했다.
- 2 <청춘 콘서트 2.0 김여진의 Action 토크> 현장.
- 3 이츠키 히로유키의 <청춘의 문>. 난해한 청춘의 문법을 문학적으로 풀어내 수십 년간 각광받고 있다.



1



2



3

제목 자체가 콘텐츠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청춘열풍이 일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KBS <청춘불패>에 는 최고의 걸 그룹 멤버들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 는다. 만약 무명의 일반인이 주인공들이거나 프로그램 안에 복고풍의 내용을 담았다 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가정이지만, 방송사가 SBS였다면 '걸 그룹 불패라 는 단어를 붙였을지도 모른다. SBS <패밀리가 떴다>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여하간 <청춘불패>는 가장 인기 있는 걸 그룹과 청춘을 결합시키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청춘은 걸 그룹들에게는 인간적이면서도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부여했 다. 만약 이름을 '신세대불패'라고 했으면 시청자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비 록 젊은이들이 아니라고 해도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청춘은 걸 그룹을 만나 생 기발랄함의 현재적 이미지를 얻었다. 걸 그룹과 육체노동.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지 못할 거 같은 미션들을 그들은 해냈다. 언제나 현실에 있지 않고 색시 아이콘으로만 존재할 것 같은 그들은 비로소 현실의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존재 가 되었다. 또한 이 프로의 제목처럼 '청춘'이기에 '불패'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말이 된다.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에도 비슷한 맥락이 흐른다. 흔히 이 책은 '별 내용 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다. 도대체 왜 이런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쓰겠다고 말 한다. 콘텐츠가 별 볼 일 없는데 사람들이 열광한다면 이는 심지어 소비하는 사람들 탓 으로 돌아가기 쉽다. 더 나아가서 이런 책들을 붙들고 있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 들의 소양을 탓하기도 한다. 이런 책이나 읽고 있더니, 하지만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아니었다.

우선 제목 자체가 콘텐츠다. 제목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풀어보면 청춘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과 소망을 쉽게 알 수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제목에서 이 도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세세 하게 말하면 청춘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아픈 사람들이 젊은 세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청춘은 한 시기를 의미한다. 단순히 젊거나 신세대라는 말이 주는 어감과 확연하 게 다르다. 청춘은 새파랗게 싹이 돋는 봄을 의미하며, 사전의 뜻에 비추어보면 10대 후 반에서 20대 초반을 의미한다. 아련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동시에 꿈과 기회가 내포되 어 있는 이 시기는 사람들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된다. 하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 이 시기를 맞게 되면 언젠가 또 떠나보내야 한다. 이는 <88만원 세대>라는 책과 매우 대별된다. 이 책에서 '88만원 세대'라는 개념은 낙인이 되어버렸다. 고용유연화의 노동 시장에서 영원히 88만원 세대로 남을 것이라는 예언도 담겨 있다. 물론 우울한 예언이 다. 책의 저자들은 그 예언에서 벗어나는 길은 짚돌을 들고 거리에서 자본주의 구조를 뒤집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체제가 온존하는 한 젊은 세대에게 희 망은 없다. 현재의 고통과 우울은 계속된다. 한순간 누구나 겪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연대와 추동의 분발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아내 좌절과 무기력으로 내뿜는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지금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누구도 고통과 상처가 영구히 계속되리라고 생각지 않으려 한다. 설령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분투할 것이다. 그것이 젊음이고 청춘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심 리적인 측면에서 88만원 세대론이 전하는 복음은 고통과 상처의 지속이었다. <아프니 까 청춘이다>에서 전하는 복음은 고통과 상처의 일시성이었다. 청춘시기에는 누구나

아프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아프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고통과 상처의 항구성과 일시성이라는 두 가지 진단이 제시될 때 더 눈길이 가는 것은 일시성일 것이다. 자기 스스로 아픈 기간을 감내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단기간은 감내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고통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기피하게 되거나 무력하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모든 것을 단지 청춘시절이라는 시기적 문제로 간주하게 해 개인의 노력과 의사결정에 따라 해법이 도출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버트런트 러셀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 위해 책을 사기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담은 책을 구입하기도 한다. 비록 익숙하고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해도 현재 고통받는 삶을 위로하고 앞날을 희망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이 책을 쓴 저자는 대한민국 트렌드 분석을 주도하는 최고학부의 교수였다. 최고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멘토링의 요체가 아픈 청춘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 순간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된다. 만약 최신 신조어로 이야기했다면 마음의 부담과 함께 머리가 아플 것이다. 마치 최고의 걸 그룹들이 실제로 도전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필자는 자신의 경험담과 젊은이들의 사례를 적절하게 아울러서 책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청춘은 생명이야

반면 안철수 교수는 직접 대면의 청춘 콘서트로 젊은이들과 소통했다. 안철수 현상은 단지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진로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혼자 잘 먹고 잘살려고 하는데 고통과 상처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려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무의미한 일에 휘둘리고 소모하게 만든다. 단지 88만 원을 받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는 내외적 환경이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청춘들은 그가 안철수연구소에 투신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과 실제 행동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만약 성공만을 염두에 뒀다면 이진희 회장을 더 지지해야 했다. 스티브 잡스에 열광했던 것도 단순히 성공과 부의 선호만은 아니었다. 그의 끊임없는 청춘정신이었다.

청춘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적인 향기가 배어난다. 아날로그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안철수라는 IT보안업계의 전문가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촌스러움이다. 만약 말 그대로 지식 콘서트라거나 미래 리더 콘서트라고 했다면 매력은 반감되었겠다. 치열해진 생존 경쟁의 와중에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압박에 시달린다.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 테크닉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자기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존도 담보받지 못한다. 하지만 청춘은 비록 낡아 보이는 말로 보이지만 아날로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뭔가 항상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는 존재 같다. 오늘날과 같이 각박하고 혼란스럽지 않았을 듯 싶은 기회와 시대를 대리투영해볼 만도 하겠다. 더구나 최고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결국 인간적인 정서와 유대를 말하는 듯싶다. 현실에서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일시적으로, 조금 있으면 지나갈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싶을 것이다. 이츠키 히로유키의 소설 〈청춘의 문〉이 1970년 첫 출간 후 2,200

청춘이라는 단어의 부활과 각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상처와 고통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푸르른 봄을 지니려하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청춘은 언제나 부활의 콘서트를 열어 푸르른 봄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 부가 발행되고 수차례 영화화와 드라마화가 된 현상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더욱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견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한 줄에 대한 갈급이 촌스러운 단어 청춘의 열풍에 담겨 있다.

더구나 안철수 교수의 청춘 콘서트는 기존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소통방법과 달랐다. 젊은 세대는 그들에게 교육의 대상이었다. 그들의 성공담을 듣는 강연회는 일방적으로 일장 연설을 들어야 하는 강압적이고 비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등하고 수평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다. 성공한 리더들은 결국 자신들의 조직에서 젊은이들 위에서 지시 명령하며, 자신의 성공 신화를 계속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어느 때보다 자의식과 정체감이 높아진 젊은 세대는 존중과 예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청춘 콘서트는 대등한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 그것도 기회와 잠재성이 풍부한 대상으로 말이다. 하지만 청춘들이 겪게 되는 현실에서 그들은 하나의 잉여인간으로 전락하고 마치 짐작과 같이 취급받는다.

청춘은 생명이야. 생명은 언제나 죽음 같은 무기물의 땅을 뚫고 간다. 청춘이라는 단어의 부활과 각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상처와 고통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푸르른 봄을 지니려하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청춘은 언제나 부활의 콘서트를 열어 푸르른 봄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노래만 부른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혼자 책보며 어루만진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여전히 아니다.

시장, 예술과 만나다

재래시장 속 이색공간들



정겨운 삶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재래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재래시장과 예술가들의 만남이 즐거운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시장을 찾는 발걸음들을 불러 모은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있다. 시장과 예술공간, 지역주민들의 재미있는 공존이 펼쳐지는 재래시장 속으로 떠나보자.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진행되는
시장골목 살리기의 일환인 아트벤처.



예술적으로 변신한 신당동 중앙시장의 모습.

지하상가의 예술적 변신,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동 중앙시장 입구. 신당창작아케이드가 펼쳐진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길에는 세 개의 이름표가 방문객들을 맞는다.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신당지하쇼펜터', 그리고 '회센터' 간판이다. 간판이 말해주듯 중앙시장 지하상가에는 예술가들의 작업 공방이 모여 있는 창작아케이드도 있고 쇼펜터도 있고 횃집도 있다. 한 자리에 그려 넣기엔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공간들이지만 아래로 향하는 입구를 따라 지하상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진다. 알록달록 물고기들이 그려진 횃집과 감쪽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안내하는 각종 표지판, 사진과 그림, 조각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방들이 한눈에 펼쳐진다. 휘영청 형광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는 어두운 지하공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종이와 도자기, 금속, 사진, 목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작업을 하고 있는 창작공간이다. 하나 둘 상인들이 떠나며 노후화되어 가던 공간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2009년 10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비어 있던 점포를 중심으로 소형스튜디오 40실, 전시실, 공동작업실 등이 들어섰고 낡고 어두웠던 시설이 리모델링되며 지하상가는 예술가뿐 아니라 상인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상점과 공방이 어우러진 '지하세계'를 둘러보는 일은 즐겁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횃집 유리문에는 물고기들이 해엄을 치고 잠시 쉬어가라 만들어놓은 벤치 위에는 돛단배가 불을 밝힌다. 저마다의 개성에 맞게 꾸며놓은 40여 곳의 공방은 밖에서 볼 수 있는 투명유리로 제작돼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슬며시 작가들이 작업하는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열린 공방이라는 공간적 특성은 곧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연결된다. 시장이라는 입지와 열린 공방이라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인은 물론 지역주민들과도 한층 가까워졌다.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체험공방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은 매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 공방들을 구경하다 출출한 속을 달래줄 먹거리까지 가득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Programs



무료체험 프로그램 나도 예술가

일반시민들이 도자, 북아트, 섬유, 칠보, 종이, 금속, 전통자수, 유리 등 다양한 분야의 입주작가와 시장상인에게 직접 공예를 배우고 작품을 제작하는 정규 체험프로그램이다. 1차(2~5월), 2차(6~9월), 3차(10~12월) 중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참여를 원한다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표는 온라인 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 카페 <https://cafe.naver.com/sdarcade>

지역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 화요예술클럽

동대문 벨트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공예 전공 청소년 예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 '화요예술클럽'은 입주예술가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공예교실이다. 10주간의 수업 진행 후 결과물을 전시한다.

아트마켓 도시락(樂)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입주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아트마켓. 창작한 아트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서 예술작품의 산업화를 시도한다. 일반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제공한다. 상품기획 및 제작뿐 아니라 아트마켓 내 음료 이벤트나 인근 횃집과 연계한 '컵 떡볶이 이벤트' 등 정기적인 행사도 진행한다.

오픈 12:00~18:00 (일, 월요일 제외)



남문시장 축제에서 공연 중인 노래교실 시장가(靑)인들.
● 문전성시사업단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페



풍물한마당을 펼치고 있는 풍물교실의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을 모습. ● 문전성시사업단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페



Programs

보고 사고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독산동 남문시장

달 밝은 밤 오케스트라 선율이 흐르고 곳곳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기타를 멘 상인들이 손님을 맞고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 독산동 남문시장의 풍경이다. 대형마트의 포화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이곳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업추진 시장으로 선정되면서부터다. 사회적기업 '자바르페'와 시장상인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일터와 휴식을 연결하는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인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더없이 가까운 휴식공간이 됐다.

남문시장의 변화는 시장상인들과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 풍물교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장통 문화학교'는 바쁜 시장 일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길 틈이 없었던 상인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계기를 마련했고, 자연스럽게 시장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을 찾던 주민들에게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지역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러 가는 시장'이 '즐기러 가는 시장'이 되었다.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간 결과 누구나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공공의 놀이터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상인과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때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각종 이벤트를 선보인다. 풍물패는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연을 선보이고,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이고 퍼지는 소규모 그룹 역시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미술교실에 참여하는 상인과 지역주민의 전시회, 기타교실 수강생들의 공연 또한 진행되고 있다. 예술가와 상인, 지역주민이 소박한 정을 나누는 흥겨운 시장잔치에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얇은 지갑으로도 두둑이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곳, 웃음 띤 상인들의 얼굴에서 희망까지 담으로 얻을 수 있는 남문시장이다.

시장통 문화학교, 미술교실 시장미(美)인

여성상인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서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동체함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드로잉과 수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 실용적이고 활용도 높은 수업이 예술에 대한 친밀감은 물론 일상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준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시장통 문화학교, 노래교실 시장가(靑)인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래교실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트로트를 비롯한 올드가요, 팝송, 합창곡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시장 축제 때마다 쇼케이스와 발표회 같은 다양한 무대에서 선보인다.

시장통 문화학교, 풍물교실 시장명(明)인

매주 목요일 오후 진행되는 남문시장의 풍물강좌로 시장상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장발전소 지하 '대형로대방'에서 진행되는 흥겨운 풍물놀이매주 한 시간 온 시장이 들썩거릴 정도다. 외치고 두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상인들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다. 명절과 축제 등 시장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상인들은 풍물패가 되어 손님들을 맞는다.

전통시장에 부는 예술의 바람, 성북구 장위시장

40년 전통의 장위시장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골목 구석구석 이어지는 상점과 분주히 손님을 맞는 상인들, 일상처럼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떠들썩한 분위기는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 사람 사는 온기를 불어넣는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나 궁금했던 추억의 가게들이 손님을 맞는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맛보았던 시골 된장집, 감이 모락모락 나는 손두부 가게, 입김을 불면 푸스스 먼지가 날아오를 것 같은 오래된 사진관까지. 잠들어 있던 서울의 역사가 그림을 깨고 나온 듯 생생하다.

서울의 그 어느 곳보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지만 어느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장위시장 역시 개발의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겨울, 장위시장에 예술의 바람이 불었다. 바로 성북예술창작센터 입주단체인 '프락시스'가 장위동에 위치한 다솔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들과 함께한 '장위시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프로젝트다. 아이들이 직접 시장을 다니며 만난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과 그림에 담고, 시장 재개발을 주제로 한 토론과 과정드라마 등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변화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오래된 것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뜻깊은 프로젝트였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시장을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장상인에게 활기를 더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치료 및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재래시장, 예술의 다양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아동과 성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 재래시장을 연계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즐거운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듯하다.

글_ 노정연 경향신문사 <레이디경향> 기자. 여행·레저 담당기자로 5년 동안 공간탐방 에세이 '동네 이야기'를 연재했다. 소박한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일상의 공간과 사람 탐구를 즐긴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료 프로그램

보건소였던 성북예술창작센터의 특성을 살려 마음을 치료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중심으로 일상 속의 스트레스와 갈등, 소외, 불안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 치유, 자기 발견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커뮤니티 아트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발굴, 운영 중이다. 시각·공연 분야의 예술교육과 공공예술, 체험형 예술활동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민을 예술적 주체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치료 및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 소셜미디어와 함께 진화하다

문화예술과 SNS ❸

● 얼마 전 미국에서는 공연을 보면서 트위터에 코멘트를 남기고 싶어하는 이를 위한 좌석인 트위터석(Tweet Seats)이 등장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밀워키 챔버 시어터,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하이오 주의 데이터 오페라, 일리노이 주의 라이터스 시어터, 팜비치 오페라 등 미국 내 몇몇 극장과 공연장에서 트위터석 도입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개관 예정인 미국 시애틀 인근 벨뷰시의 타토치 센터는 관객들 누구나 공연 도중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휴대폰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점점 줄어드는 젊은 관객 유치를 위해 그간 공연장에서는 금기시되어 오던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작품에 대한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느낌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상호작용의 길을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얻었다.

이와 같은 트위터석 사례뿐 아니라 지난 두 번의 연재를 통해 소개했던 트위터 오페라나 트위터 퍼포먼스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문화예술계의 혁신적인

움직임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실험에서 끝나는 시도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기존과 달리 디지털 기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달라진 문화예술계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변화의 바람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소셜미디어가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소통과 공유, 개방과 혁신 등의 다양한 가치를 촉발시키며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만들었다. 창작, 매개, 향유 등 문화예술 가치사슬의 변화를 필두로 장르별로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들 통해 해외의 다양한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소통하고 참여하며 진화하는 문화예술

핀란드의 대표적인 오페라 축제인 사보리나 오페라 페스티벌

“소셜미디어는 관객으로 하여금 대화하고 토론하게 하였으며, 같은 문화예술 취향을 공유하는 향유자를 네트워킹하게 해주었다. 또한 문화향유자에서 생산자로 변해가는 새로운 시대의 관객에게 참여의지를 북돋아주는 예술참여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은 2012년 여름 매우 뜻깊은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www.operafestival.fi/operabyyou.iw3)을 통해 준비해온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오페라 공동제작 프로젝트인 <Opera by You>가 그것이다. 오페라의 플롯 개발에서 작곡, 세트, 의상, 무대디자인 같은 시각화 작업, 슬로건 등의 마케팅까지 전 세계에서 자발적 참여한 사람들의 협업으로 제작된다. 현재 전 세계 약 40개국 평균 연령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오페라는 'Free Will'이라는 제목으로 여름 페스티벌의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영국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트위터 오페라가 대본 공모 참여에 한국화되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일반인이 오페라의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제작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오페라의 제작 사례를 비롯 지난 호에 소개한 미국 브록클린 박물관의 크라우드 큐레이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문화향유 및 문화 매개뿐 아니라 창작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 숨겨져 있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참여 기회와 개방이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의 많은 사례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보다 많이 공유하게 할수록 문화예술은 더욱 퍼져나가고, 관객과 함께하는 열린 의사결정의 기회를 통해 관객이 작품과 예술단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향유자 이상의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향유자, 예술가, 예술

단체가 전보다 많은 대화를 시도하며 교류하기 시작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자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위의 사례 같은 지역간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 예술 협업도 나타난 것이다. 무엇보다 향유자가 창작에까지 참여하면서 관객이 이끄는(Audience-Led) 문화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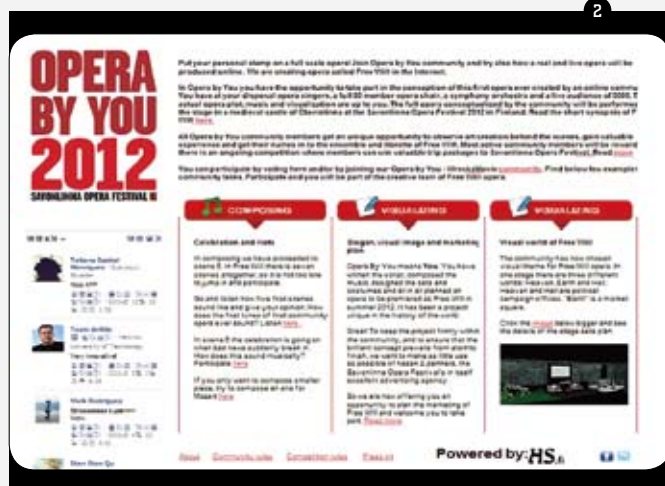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연결에 의한 교류를 촉발시키면서 다수의 지혜가 모이는 집단협업 예술(Crowdsourced Art)을 등장시켰고, 창작 기회가 많아지면서 관객이 참여하여 만드는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을 다각화시키는 등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가는 데도 기여했다. 특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향유자의 범위와 시장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디지털 유통 창구도 넓어졌다. 향유자의 대상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확보된 이동성으로 인해 콘텐츠가 전 세계 어디서나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문화예술의 무대는 디지털을 타고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2~3년 먼저 문화예술계에서 소셜미디어를 수용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사례를 도출하였지만, 국내의 경우는 해외사례만 보고 따라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공적 사례를 도출하고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활용하여 예술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특화된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관객의 소셜미디어 활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우리만의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분화되어 있는 관객층의 니즈에 맞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타깃이 될 관객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부반응을 극복하고 개방성과 정직함을 가지며 많은 정보보다 필요한 정보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작게 시작하여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단기적 성과를 바라고 시도하는 소셜미디어는 그 효과가 미비하기 마련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소셜미디어를 신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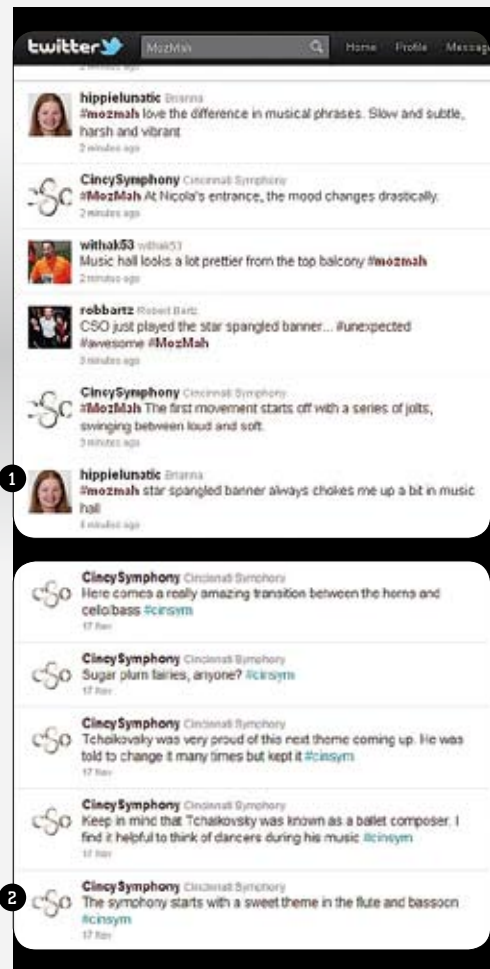
1·2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전 세계 오페라 제작협업 프로젝트 <Opera by You>.



관계형성의 도구라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면,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대화를 만들어내면서 자가발전하게 될 것이다. 소셜미디어 이전에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온라인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도 꾸준한 활동성과 정기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계의 주체로 성장했듯이 소셜미디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시적인 운영이나 단발적인 활용보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객과의 대화에서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흔히 마케팅 채널로만 여기는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이를 분야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살아 있게 만드는 담당자들의 열정을 요한다. 실시간성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경우 지속적인 노출과 활동이 없으면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가 야기하는 큰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는 않고 매체 중의 하나로만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의 활용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화예술계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한 수용이 늦고, 소셜미디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꾀안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다각화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왔지만, 순수예술 분야는 지속적인 관객 감소라는 시련에 시달려야 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소셜미디어가 사회를 변화시켜도 이를 받아들이는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기존의 관례를 답습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한다면 해외의 사례처럼 의미 있는 변화란 적을 것이다. 달라진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이해하고 관객과의 관계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개인을 넘어서 문화예술 생태계의 주체 모두가 함께할 때 소셜미디어가 문화예술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다. 사회전반의 소통과 개방의 변화를 이끌어낸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폐쇄적이었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스스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소셜미디어의 가장 근본적인 대상은 기존에 예술상품을 소비하는 관객이며, 이들과의 관계형성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판매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결과에 기반하여 궁극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젊은 관객층은 이제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 의한 관계형성을 통해 향후 직접적인 예술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잠재 고객이 된다. 문화예술계의 영원한 과제인 관객개발의 창구이자 관계형성의 첫 단추로 소셜미디어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노력한다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전 세계의 다양한 관객층이 미래의 관객이 될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미디어로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의 소셜은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해지며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통제가 아닌 관객의 참여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야 한다. 대화가 갖는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역동성으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자연적으로 퍼지게 된다. 대화와 업데이트는 더 나은 소통을 촉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킨다. 일방향성 대화가 쌍방향화되려면 대화에 관객을 전보다 많이 참여시키고, 보다 투명해야 하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소셜미디어를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화는 거짓된 이야기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진정성 없는 이야기는 호소력을 잃기 쉽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객과의 지속적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소셜미디어는 문화예술계에 혁신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은 소셜미디어에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의 소재를 제공하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누구나 삶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하고 매개하는 문화예술2.0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 1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와 말러 공연 트위터의 해시태그(#mozmah) 활용 모습.
- 2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당시 해시태그(#cinsym) 활용 모습.
- 3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Tweet From Your Seat'.

며, 여기에 과장이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투명한 대화를 통해 예술가와 관객, 관객과 관객, 예술단체와 관객 등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상호작용이 증가할 것이다.

예술가와 단체의 입장이라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듣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나야 하는 관객이 어떤 채널에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객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주제는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대화의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모든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올 때 진정한 의미의 개방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런 열린 대화는 관객이 이끄는 문화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관객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에 뛰어들어야 할 시점이다. 예술가, 향유자, 문화예술 단체 간 디지털 변화와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인식수준과 활용도에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거듭되면서 국내의 경우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도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태계 전반의 큰 변화의 흐름을 읽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적시에 시의적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논의에 대해 공유가 확대되어야 한다. 관객과의 소통뿐 아니라 예술가와 단체 간의 대화를 통

한 협업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 밑에서부터 향유자 중심으로 달라진 환경에 단체나 정부가 아직까지는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 미디어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상생

소셜미디어는 대화를 생성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며 잠재적인 미래 관객과의 관계형성이 그 주된 효과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므로 문화예술계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소모적인 정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객은 문화예술 현장의 살아 있는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길 원한다. 소셜미디어는 관객으로 하여금 대화하고 토론하게 하였으며, 같은 문화예술 취향을 공유하는 향유자를 네트워킹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수동적인 관찰자를 공유자로 바꾸고 창작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향유자에서 생산자로 변해가는 새로운 시대의 관객에게 참여의지를 북돋아주는 예술 참여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생생한 예술의 현장 경험은 어떤 새로운 기술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을 통한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쏟아져 나온 콘텐츠들은 문화예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을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보완제의 역할로 기능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보탐색과 선택을 돕는 채널로 소셜미디어가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음악산업의 경우 가장 빨리 디지털화되면서 아이튠즈 시대를 맞이하였고 라이브 음악 공연시장도 이를 매개로 더욱 성장하였듯이, 소셜미디어는 예술체험을 촉진시키고 다각화해주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문화예술계에 혁신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은 소셜미디어에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의 소재를 제공하면서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문화와 문화예술 간의 창의적인 상생은 디지털을 통해 누구나 삶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하고 매개하는 문화예술2.0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웃음 치렁크!

감춰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찰각'하는 소리와 함께 찰나의 기록은 추억이 되고,
일상이 축제가 되는 순간,
그것은 예술을 만났을 때.

_ 서교예술실험센터 (2011 홍대 앞 다시보다)에서

글 편집실





성장을 멈춘 언니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최치언 작, 이성열 연출, 극단 백수광부의 <언니들>

● 현실성이 결여된 내용들, 정리할 수 없는 완결되지 않은 대사가 난무한다. 때로는 기억인 듯, 때로는 꾸며낸 이야기인 듯, 때로는 말놀이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무의식을 들킨 듯 섬뜩하기도 하고, 때로는 들켜서는 안 되는 알 수 없는 죄의식인 것도 같다. 그녀들은 끊임없이 그런 식의 대사를 주고받으며 시종일관 까분다. 아줌마들에게나 걸맞을 듯한 걸쭉한 욕설과 퇴직한 성적(性的) 농담 끝에 소녀처럼 깔깔대며 웃어대던 그녀들이 잠시 숨을 고르듯 멈출 때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소리와 기괴한 웃음소리, 까마귀 소리가 들릴 때뿐이다. 그녀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두려움에 몸을 떨다가도 옥수수가 길게 늘어진 황량한 곳, 버려진 가구들로 가득 찬 옥수수밭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놀이를 계속한다. 엄마에게 밧갈릴까봐 겁내면서도 계속되는 그녀들의 놀이는 금지된 것들에 대한 동경과 왜곡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들이 역할을 바뀌며 놀이를 계속하면서 유예시키려는 것은 성적으로 여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녀들은 서로를 채근하며 허수아비와 ‘통장’을 했는지 확인하더니 급기야 양숙 같은 첫째와 둘째는 서로의 배를 갈라 완두콩알만 한 아기를 꺼낸다. 배를 가르고 피투성이가 된 언니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혼자 남게 된 셋째는 중얼거린다. “언니들은 죽었어. 이제 나는 혼자야. 혼자 아기를 낳고 혼자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러나 자신을 사랑의 상징이라고 자신했던 셋째의 비장한 결의는 곧 무의미해진다. 암전 후 밝아진 장면에서 첫째는 셋째가 되고 둘째는 첫째가 되며 셋째는 둘째가 되어 다시 역할놀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끝없는 그녀들의 언니 되기 놀이는 계속된다. 최치언 작가가 그려낸 기괴한 여성들의 판타지, 연극 〈언니들〉의 정리될 수 없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매혹적인 잔혹동화

언니들이라니, 오빠들은 볼 수 없는 여성 전용 연극인가. 〈언니들〉을 보기 전 최치언 작가의 전작 〈미친극〉을 떠올린 것은 큰 실수였다. 현실에 밀착된 동화는 동화일 수 없기에 감동도 없다. 최소한 〈미친극〉은 그랬다. 작가가 창작한 작품 속에서 작가의 무의식이 또 다른 작품을 쓰고 현실의 작품과 상상 속 작품이 오버랩되는 등 그건 판타지를 가장한 현실이었기에 혼란스럽고 답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언니들〉 공연은 초연을 놓쳤다는 사실이 아쉬울 정도로 매혹적인, 명백한 잔혹동화였다. 어린 시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던 무서운 사실, 초



경은 곧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여성들의 운명을 남성작가는 잔인할 만큼 진솔하게 그려냈다.

작가 스스로 “희곡으로 쓰여진 시” 혹은 “시로 쓰여진 희곡”이라고 설명하는 〈언니들〉은 시처럼 간명하나 감각을 환기하는 대사를 구현하여 일견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느낌도 주었다. 무릇 희곡 작가란 스토리 작가가 아니라는 미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최치언 작가의 희곡은 텍스트 자체가 발랄하고 다층적인 대사로 짜여 있기 때문에 자칫 산만하게 흩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을 맡은 극단 백수광부의 이성열 연출은 희곡 텍스트를 보존하는 특유의 솜씨로 희곡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고도 희곡 텍스트 이상을 무대 위에 만들어 보였다. 희곡 텍스트를 존중하는 이성열의 연출력은 최치언의 희곡 텍스트가 무대 위에서 세 배우들의 입을 통해 놀아날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것이 이번 공연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희곡 텍스트의 선형적 인물들이 발랄하고 그로테스크한 세 언니들로 입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김현영, 김민선, 김원진, 박미란 등 여배우들의 연기가 한몫했기 때문이었다. 엉뚱하거나 발랄하고, 무식하거나 순진하고, 앙큼하거나 귀여운 그녀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배우들이 찾아낸 동작과 표정은 정신없는 무대 위에서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들었고 지루할 틈도 주지 않았다. 세 명의 여배우는 무대 위를 종횡무진 휘저으며 운전도 하고 섹스도 하고 파티에도 가고 살인도 한다.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소녀는 불쌍하다. 아빠는 집을 나갔고 엄마는 소녀를 중얼한다. 소녀는 그런 엄마가 무섭다. 소녀는 엄마의 눈을 피해 옥수수밭 사이로 숨어든다. 그 한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공간이 있다. 소녀만의 안식처이자 놀이터인 공터. 이곳에서 소녀는 언니들을 만난다. 멀리서 소녀를 잡으려는 미친 엄마의 총소리가 들려온다.” 시놉시스에 정리된 상황으로부터 공연은 시작된다. 거실인지 헛간인지 알 수 없는 무대는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노란색으로 가득 차 있다. 정신분열 상태에서 그려졌다는 고흐의 〈해바라기〉가 온통 출렁이는 노란색으로 가득 찼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듯, 노란색이 이처럼 불안하고 불안정한 색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무대는 광활하기보다 비좁은 창고처럼 장식되었고, 천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옥수수는 충분히 밟기 되지 못한 채 지쳐버린 남근을 상징하듯 징그럽고 처량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 등장한 세 여성의 외양도 범상치는 않다. 소녀 같기도 하고 완숙하게 늙지도 못한 노파 같기도 하고 맥베스를 홀리던 숲속의 마녀들 같기도 하다. 첫째(김현영 분), 둘째(김민선 분), 셋째(박미란/김원진 분)는 등장부터 서로를 마녀라고 부르며 육탄전을 불사하는 격렬한 애증을 과시한다. 아차 피 벌어진 일일랑 운명으로 돌리자며 말다툼을 시작하는 이들이 숨기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궁금한 가운데,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녀들이 벌인 그 일, 상상과 사실, 허구와 진실이 뒤얹힌 그 일은 그녀들이 읊대하는 대사에서 주문처럼 흘러나오고 곧 그녀들은 동창회를 가기 위해 소파에 올라 앉아 자동차를 운전한다. 동화 속 마법처럼 놀라운 장면전환의 솜씨다. 낡은 소파에 앉아 운전대를 잡은 둘째, 그 옆에서 변죽을 울리며 이죽대는 첫째, 소심하게 뒷좌석에 앉아 암전을 빼는 셋째. 그녀들은 “눈이 소 방울만 하던 동창생”을 차지할 욕심으로 텅 없이 명량해진다. 그녀들의 욕망은 생리까지 거부할 정도로 충만하게 부풀어 있다. 엄마 몰래 집을 빠져나와 파티장으로 향하는 즐거운 밤마실은 그러나 악몽으로 끝난다. 좌우로 심하게 덜컹거리던 자동차가 누군가를 들이박은 것이다. 셋째가 힘들게 소파로 옮겨놓은 허수아비는 어쩌면 그녀들이 지난 밤 자동차로 몽개버린 시체일 수 있다. 허수아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다. 둘째는 허수아비의 말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첫째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셋째는 허수아비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도 하지만 둘째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서로의 의미가 서로에 의해 부정되며 끝없이 유희한다. 하여 상황이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란 어렵다.



의미를 유예하는 그녀들의 말놀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죽은 줄 알았던 허수아비는 갑자기 밟기를 하고 무한대로 분열되어 그녀들을 덮친다. 즐거운 듯 괴로운 듯 뒹침을 당한 그녀들은 임신을 한다. 물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허수아비들이 등장하여 소녀들의 간절한 욕망을 채워주었다는 사실만 짐작될 뿐이다.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까닭에 분절될 수밖에 없는 의미와 유예되는 상황이 무대 위를 부유한다. 부유하는 상황과 의미, 곧 성장을 거부한 채 늙어가는 소녀로 남아 있으려는 언니들의 기괴한 상황과 확정할 수 없는 그녀들의 정체성이 바로 〈언니들〉이 환기하려는 문제적 상황이다.

거부할 수 없는 욕망에 관해

멀리서 그녀들을 찾아 헤매는 엄마의 총소리가 들려온다. 그녀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섬뜩한 대화를 끝없이 이어간다.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 제초제를 세 통이나 먹고도 살아 있는 어머니, 특하면 그녀들의 젖가슴을 주물러대다 죽임을 당한 삼촌, 자신들의 처녀를 기꺼이 주고 싶은 눈망울이 커다란 동창생, 은밀히 나선 밤나들이에서 자동차로 몽개버린 누군가까지. 비밀이라고 하기엔 공포와 공범의 냄새가 짙은 은밀한 이야기를 그녀들은 나불나불 잘도 까발린다.

유린된 어린 시절, 억압되고 왜곡된 성적 욕망, 가족에 대한 죄의식으로 엉망이 된 나이를 기습할 수 없는 세 자매는 쌍둥이라고 자신들의 관계를 결정하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사실은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소녀들이라는 점이다. 총잡이 허수아비의 무기를 밟기된 성기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그녀들의 성적 욕망은 동시에 성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한다. 성적 욕망에 사로잡혔다



상상만으로도 성장을 거부하는 늙은 소녀들이 심히
끔찍하게 여겨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언니들>의 놀이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깊은 무의식을
불편하게 간질거리는 것은 곧 연극적 진실일 수 있다.

는 사실만으로도 죄의식에 휩싸이는 그녀들은 스스로를 소녀라고 우감으로써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소녀가 성장하여 여성이 된다는 것이 환기하는 그 모든 두려움이 그녀들을 늙은 소녀로 남아 있게 하는 것이다.

여성이 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보다 성장을 거부한 소녀로 남아 영원히 놀고 싶은 이들이 감내할 수 없는 아이러니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이다. 그들이 셋째가 끌고 들어온 허수아비를 호들갑스럽게 거부하면서도 내다버리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남성이 투영된 허수아비는 그녀들의 놀이에 초대된다. 허수아비는 초대받지 못한 동창파티에서 만날 뻔한 동창생일 수도 있고, 공모하여 물속에 처박아버린 삼촌일 수도 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 정확히 말하면 남근을 지닌 모든 것들일 수 있는 허수아비는 과장되게 부풀어 오른 성기로 그들을 설레게 한다. 남성과 여성, 엄마와 아빠, 그 무엇도 될 수 있지만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그녀들은 기억이 아니라 상상에 갇힌 소녀들이다. 소

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엄마도, 고모도, 이모도 아닌 언니뿐이다. 때문에 그들은 서로 언니가 되는 놀이에 집중한다. 하지만 언니들은 아이를 꺼내다(출산의 고통에 대한 여성들의 무의식적 거부를 상징한 듯하다.) 죽고, 언니들의 폭력적인 출산의 과정을 지켜본 셋째는 결과적으로 여성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를 경험하게 된다. “언니들과 만들었던 기억들은 모두 언니들이 가져갔어”라고 속삭이는 셋째는 혼자 남겨진 무대에서 “난 이제 언니들 없이 끝없는 시간을 혼자 살아야 돼”라며 고독한 삶을 예감한다. 마치 더 이상 소녀가 될 수 없는 의젓한 어른처럼.

상상해보라. 늙은 소녀들이 왜곡되고 억압된 기억의 편린을 통해 상상하는 것만으로 생을 이어가는 상황을. 상상만으로도 성장을 거부하는 늙은 소녀들이 심히 끔찍하게 여겨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언니들>의 놀이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깊은 무의식을 불편하게 간질거리는 것은 곧 연극적 진실일 수 있다. 왜곡되고 억압된 성적 욕망과 그로 인한 죄의식을 통과의례처럼 경험하는 언니들의 그로테스크한 일상은 그러므로 섬뜩하고 잔혹하지만 아름답고 숭고하다. 암전 후 밝아진 무대에서 그녀들은 애초부터 여성이란 성적 정체성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언니 되기의 역할놀이를 명랑하게 다시 시작한다. “마치 시 한 편을 읽은 것처럼, 확 잡히지 않지만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작가의 바람처럼, 여성인 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그 말. 그렇지,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될성부른 소설을 찾아라

문화계 리메이크 열풍

한 해의 문화계 흐름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으나, 2012년에 대해서라면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스크린셀러’를 중심으로 한, 문화와 다른 예술 장르의 이종교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2011년 영화계와 출판계의 중심에는 ‘스크린셀러’가 있었다. 뮤지컬 〈셜록홈즈〉와 연극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레미제라블〉이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TV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역시 마찬가지다.

영화계에서는 〈완득이〉와 〈도가니〉, 그리고 애니메이션 〈마당

을 나온 암탉〉이 흥행세를 주도했다. 단순히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준을 뛰어넘은 대성공이었다. 이야기가 탄탄하고 많은 팬을 확보한 소설을 영화로 만들 경우, 기존의 흥행공식을 파괴하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은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늑지대를 비롯한 ‘한국적인’ 자연환경을 담아내고자 한 제작진의 노력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좋아하는 원작소설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냈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관객이 들지 않는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면서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완득이〉와 〈도가니〉도 흥행공식을 파괴한 스크린셀러 열풍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는 〈마당을 나온 암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완득이〉는 그간 한국에서 흔치 않았던 ‘청소년 성장영화’의 흥행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유아인과 김윤석이라는 두 배우의 연기 호흡이 좋았지만, 그것만으로 같은 시기에 극장에 걸린 〈리얼 스틸〉 〈삼총사3D〉 〈오직 그대만〉을 따돌리고 흥행 1위에 오르리라 예측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려령 작가의 소설 〈완득이〉부터가 한국 청소년문학의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이다.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이 소설은 이후 청소년소설 창작·출간붐을 이끌었다. 흥행공식을 파괴한 것으로



뮤지컬 〈셜록홈즈〉

치면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꽃미남' 배우가 출연해도 '어두운 영화'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도가니>는 추석 즈음 개봉했던 <통증> <의뢰인> <카운트다운> <챔프> <투혼>과 싸워 이겼다. <도가니>의 흥행세를 타고 실제 사건은 9시뉴스를 비롯 각종 시사교발 프로그램에서 재조명되었고,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낳았다. 놀랍게도, 이 세 편의 영화들이 기존의 흥행공식을 무시하고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미 팔릴 만큼 팔렸다고 생각되던 원작소설들도 덩달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영화계와 출판계에서 '스크린셀러'는 틈새시장이 아니라 가장 주효한 마케팅 전략이 된 셈이다.

올해도 대세는 리메이크

문화계의 문학 '리메이크'하기 열풍은 영화계만의 것은 아니다. 뮤지컬 <셜록홈즈>는 할리우드 영화 <셜록홈즈> 시리즈, 영국 드라마 <셜록>과 더불어 시즌제로 제작되어 눈길을 끈다. 창작뮤지컬인 <셜록홈즈>는 과감한 각색을 시도했는데, 홈즈의 캐릭터는 원작과 같지만 조수 겸 파트너인 왓슨을 남자가 아닌 여자로 설정했고, 주요 인물은 원작 그대로이지만 스토리를 새롭게 창작하여 책을 이미 읽은 사람이라도 새롭게 뮤지컬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처음부터 시즌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나머지 정형화된 해석만이 있을 것 같았던 '셜록 홈즈'를 능동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잘 알려진 작품일수록 가능하면 원작 그대로를 옮기는 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셜록홈즈>는 각색의 힘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인 시도가 성공을 거둔 셈. <셜록홈즈>는 2011년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극본상, 작곡상 등 3관왕을 차지했고, 3월에 앵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뮤지컬뿐 아니라 연극계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레미제라블> 등이 탄탄한 캐릭터와 구성을 지닌 소설을 극화해 성공을 거두었다.

새해의 시작과 더불어 공중파TV 3사에서는 일제히 수목드라마를 새로 런칭했다. KBS는 <난폭한 로맨스>를, SBS는 <부탁해요 캡틴>을, MBC는 <해를 품은 달>을 선보였다. 각 드라마의 캐스팅으로나, 해당 드라마들의 이전 작품에 따른 유명세로 보나 쉽게 우세를 점치기 힘들었지만 첫 방송이 나가면서부터 승패가 확연히 갈렸다. <해를 품은 달>의 압승이었는데, 이 작품은 <성균관 스캔들>의 원작소설을 쓴 정은경 작가의 소설을 각색한 것. '꽃도령 신드롬'을 일으켰던 <성균관 스캔들>의 원작자가 쓴 작품이라는 요소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송사에도, 나아가 일제히 새 드라마가 선을 보이는 시기를 맞은 시청자들에게도 크게 어필했



영화 <도가니>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다. 2011년 최고의 드라마로 꼽힌 <뿌리 깊은 나무>도 성공 유형에서는 <해를 품은 달>과 닮아 있는 작품이다. 원작소설 <뿌리 깊은 나무>를 쓴 이정명 작가는 이미 박신양, 문근영 주연의 드라마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바람의 화원>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불황에 시달리는 출판계는 이런 움직임이 반갑기만 하다. 한 작품이 뜨고 나면 해당 작가의 전작들까지 덩달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쯤 되고 나니 2012년에는 TV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월성부른' 소설 찾기에 여념이 없다. 변영주 감독은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를 영화화하고, 장윤현 감독은 김탁환 작가의 소설 <노서아 가비>를 영화 <가비>로 만든다. 이 외에도 정유정의 <7년의 밤>, 이재익의 <싱크홀>, 노나미 아사의 <얼어붙은 송곳니>, 박범신의 <은교>, 김훈의 <현의 노래>, 김영하의 <오빠가 돌아왔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 영화로 제작된다. 지금 한번 책장을 훑어보시라. 그곳에 미래의 '시청률 1위', '대박영화'가 잠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Review

죽었으되 끝나지 않은 역사

연극 <풍찬노숙>

이번엔 4시간이다. 2008년 5시간짜리 연극 <원전유서>로 대한민국 연극계를 발각 뒤집어놓았던 극작가 김지훈이 신작 <풍찬노숙>으로 다시 관객과 일전(一戰)에 나섰다. 이 싸움은 희한한 싸움이다. 양쪽 다 이길 수 있고, 양쪽 다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작품으로 나오느냐가 문제다. 연초부터 연극계를 들뜨게 한 작품을 훑쳐보러 나섰다.

지난 1월 14일, 100쪽짜리 희곡은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막을 나흘 앞두고 첫 리허설을 한 날이었다. 김재엽 연출가는 “이제야 어떤 작품인지 우리도 보게 됐다”며 배우들을 불러모았다. 그가 “파이팅 한번 하자”고 하니 배우들이 하나둘씩 한가운데로 모였다. 파이팅 치고 실로 호쾌했다. “5시간 나와도 괜찮습니다!”가 구호였으니.

<풍찬노숙>은 무대부터가 범상치 않은 도전이다. 원래 있던 객석과 무대를 완전히 뒤바꿨다. 관객석은 무대가 되고, 무대가 있던 자리를 관객석으로 재배치했다. 180명은 세 방향으로 나뉘어 연극을 지켜보게 된다.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것은 언덕 때문이다. 김지훈은 ‘풍찬노숙’에서 큰 언덕과 작은 언덕을 만들고 큰 언덕에 북을 심었다. “반드시 오롯한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남산예술센터 관객석의 경사를 언덕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아이디어였다. 덕분에 조명기구며 각종 장치를 새로 설치하느라 족히 2주는 걸렸다. 경사진 언덕을 오르내리다 발목을 접질린 배우도 있었다.

혼혈족에게 북은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된 물건이다.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그 사람, 응보다. ‘얼굴은 마이클인데 이름은 응보’인 그는 왕이 될 인물이다. 오직 10분, ‘혼혈족의 홍길동’인 그가 왕이 됨으로써 새로 탄생하리라 믿는 종족이 혼혈족이다. 얼굴은 순대 빛인 데다 섞인 피가 몸을 타고 흐르는 그들은 살아 남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세우려 한다.

응보를 추동하는 것은 문제라는 소꿉친구다. 그는 큰 북을 치는 자가 왕이 된다는 전설을 신봉한다. 최면인 듯 주문인 듯 “왕이



있어야 역사가 힘을 얻어. 등극은 임무!”라고 되풀이해 외친다. 문제를 비롯한 혼혈족에게 살색 번듯한 순혈족의 지성을 목사발 내는 응보의 비상한 두뇌는 크나큰 자랑거리다. 응보로 말할 것 같으면, “응보가 타온 상장을 달인 물만 먹어도 수재가 된다”는 소문에 동네 사람이 집 앞에 장사진을 치는 인물이다. 좋은 머리로 받아온 상장이 방마다 그득하고, 잡히는 대로 넣은 트로피는 수백 가마를 채운다. 남아도는 상장 태워 밥 짓고 목욕물 끓일 지경이다. 그러나 혼혈족이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무소용이다.

막이 열리고, 경사를 타고 내려오는 세 사람이 보인다. “인생에는 각자의 비료 포대가 있다”는 제법 거창한 철학을 가진 오참, 도참, 부참 ‘세참이’ 형제다. 사무치게 끓는 피를 가졌으나 일고여덟 살 때에 이미 “얼굴이 순대 빛이니 다 커도 못 쓴다. 세상엔 기대마라”는 아버지의 모진 선고를 받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외치던 형제는 가슴의 응어리로 경사를 밀어가며 비료 포대가 너덜거릴 때까지 한 맺힌 놀이를 반복한다.

삼형제의 등장 뒤로 언덕에서 벌어지는 온갖 대소사에 일일이 참견하고 다니는 아낙 요년과 조년, 등에 산을 지고 다니는 꼬추 정곰사, 좋은 돌을 만나 좋은 세상 새겨넣자고 무너진 성소를 쌓고 쌓는 처장군, 일어서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그날 이후 누워만 있는 효음, 응보만 보면 가슴이 쿵다쿵다 뛰는 문제의 여동생 개심,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응보가 왕좌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응보를 원수 삼아 뒤를 밟는 원수덕제, 원수덕제의 모친이자 원혼인 심서가 차례로 나온다. 이들이 혼혈족의 건국 신화를 세우고, 남부여대의 가치를 회복할 선남선녀다.

그들은 살아 있다

김지훈은 경남 시골의 읍내를 건다가 혼혈족 착상을 했다고 한다. “어미인 듯한 동남아 여성이 아들로 보이는 콩만 한 사내아이와 길에 서서 다투고 있었다. 아이 입에서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쏟아지는데, 어미는 우리말이 서툴고 어눌했다. 그 순간 흥길동을 떠올렸고, 차별의 세상을 직감했다.” 순혈족이 남의 살인 줄 알고 떼어내려 하는 혼혈족은 실은 그들의 생살이다. 스치기만 해도 생채기가 날 듯 연하고 부드러운 ‘생살’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그애’다. ‘주워온 그애’로 통하는 그 여자 ‘그애’는 김지훈이 “가장 사랑한다”고 선언할 만치의 순수와 선함을 품고 있다.

아마도 많은 관객은 김선주(金船主)를 가슴에 담고 일어설 것이다. 널빤지를 묻으면 자기 배가 돌아온다고 믿는 선주, 배만 들어오면 먹고픈 떡을 찾을 것이고 배만 들어오면 이 땅을 바다로 채우겠다고 믿는 선주는 살아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모든 이의 표상이다. 김지훈이 말하는 김선주의 탄생 배경은 듣고 있자면 두근거릴 정도다. “실제로 봤던 사람이다. 정신 나간 아저씨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어디까지 가냐고 물으니 배만 들어오면 내리겠다고 했다. 어떤 질문에도 배만 들어오면, 이라고 했다. 신비로웠고 마법사 같았다. ‘배만 들어오면’

이라는 그 말에 마법을 걸고 싶었다. 찌질하고 얄보이는 인물이지만, 결국에는 그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만의 역사를 세우려던 혼혈족의 봉기는 처참할 정도로 허무하게 실패한다. 왜 그래야 했을까. “억지로 만드는 역사가 값어치를 한다면 옳은 것이 아니니까요. 혼혈족의 역사를 따로 쓸 필요 없이, 순혈족과 같은 역사로 인정받아야 밝은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김지훈의 설명이다.

실패했으나, 뜨거웠다. 자신들의 역사를 세우겠다는 혼혈족 백만대군이 피를 뿌리듯 던진 붉은 연판장이 하늘 가득 날리는 마지막 장면은 끝내 꺾지 못할 진심의 회오리인 양 황홀했다. 4시간을 버틴 관객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일 것이다.

극은 정녕 배가 들어오며 닫힌다. 이루어진 것이다. 행복하고 따뜻하다. 그들은 살아 있다. 응보의 아이를 가진 개심의 배가 불룩하다. 왕의 역사는 이어진다. 죽었으되 끝나지 않은 역사가 이어진다. “점점 짧아지고 빨라지고 작아지는 세상에, 길고 느리고 큰 것을 던져보고 싶었다”는 김지훈의 뜻도 이어질 것이다.

글_ 신정선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공연을 담당한다. 음식 분야 담당일 때 만난 사람 30명을 모아 최근 <맛있다, 내 인생>을 펴냈다. 공연계에서는 누굴 끌어들이 책을 낼까 하고 취재 중에도 호시탐탐 눈을 번뜩인다.



현실의 그라운드에서

최근 야구 영화들의 새 경향



〈퍼펙트 게임〉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야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진감 넘치는 영화라도 앉아 있던 관객들로 하여금 별뿔 일어나 방방 뛰게 만들지는 못한다. 제아무리 스크린에서 폭풍감동이 몰아친다 한들 생면부지의 옆 사람과 덩석 껴안게 하지도 못한다. 이는 야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스포츠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반대의 경우는, 성립할 때도 있다. 화면에 대고 샷대질을 퍼붓거나 오물을 투척하고픈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졸작 영화를 종종 만나곤 하니까.

이렇듯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도 스포츠영화, 그 중에서 야구영화들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에는 보건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야구팬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관중이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영화계에서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군침만 삼킬 순 없는 노릇. 게다가 야구팬이라고 1년 내 내 야구만 보고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 포스트 시즌을 제외하면 연중 경기가 있는 날은 (무척 슬프게도) 133일밖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영화를 인생의 모사라고 한다면 야구만큼 삶을 축약하여 담아낼 수 있는 소재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사로서의 야구.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구의 한 부분을 그대로 똑 떼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화가 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공이 필요하다. 현실의 야구에는 몇 년째 정상을 지키는 강팀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팬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연전연승하던 팀이 또다시 연전연승한다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어봤자 객석에선 파리들만 손에 땀을 쥐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초 야구영화들은 신화를 좇았다. 별 볼 일 없는 팀이라든가, 재능은 있지만 현재는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계기를 통해 성장하여 마침내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펼친다는 포맷이 그것. 무려 16년간 절치부심한 선수가 전대미문의 강타자로 변신한다는 〈내추럴〉이나 시골 고등학교 화학교사에 불과했던 중년가장이 마침내 메이저리그 무대에까지 오른다는 〈루키〉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흥미로운 점은, 어느 해보다 많은 작품이 쏟아져 나왔던 2011년의 야구영화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신화적 구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의 출발은 대개 비슷하다. 별 볼 일 없는 팀이라든가 이제는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종착역인 마지막 승부에서는 모두들 좌절을 겪는다.

〈글러브〉의 충주성심학교 야구부는 꿈에도 그리던 전국대회 1승 앞에서 분루를 삼켰고, 〈투혼〉의 퇴물투수 윤도훈(김주혁)은 노히트 노런 게임을 한 이닝만 남겨 둔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으



〈머니볼〉



〈클러브〉



〈투혼〉

며, 월드시리즈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머니볼〉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야심차게 출발한 이듬해에도 같은 결과에 만족해야 했다. 최고의 투수를 마침내 가리겠노라 덤벼든 최동원(조승우)과 선동열(양동근)은 15회까지 이어진 연장전 끝에 허망한 무승부를 맞았다.

그리고 5할의 패배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야구영화들이 좌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 어쩌면 좌절이야말로 팬들이 야구라는 게임을 통해 느끼는 인생의 정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에서 흔히 5할 승률이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팀 성적이라 대개의 경우 성공적인 시즌으로 평가받는다. 말인즉슨 그 성공적인 시즌의 5할도 패배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 절반의 승리조차 챙기지 못하는 하위권 팀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야구팬들은 이 다이아몬드의 그라운드 위에 신화 따위는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절체절명의 찬스에 야구장 조명탑을 박살내는 홈런을 날리거나(〈내추럴〉), 사십 줄에 들어서도 시속 157km의 공을 연투할 수 있는 투수란(〈루키〉) 전설 속 흑룡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지난해 줄줄이 개봉했던 야구영화들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던 것은 그 신화적 카타르시스를 포기한 탓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중영화의 매력인 카타르시스를 버린 야구영화는 대체 어떤 쾌락을 선사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지난해 야구영화들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머니볼〉과 〈퍼펙트 게임〉이다.

시즌 중의 야구팬들은 두 번 변신한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그야말로 팬이지만 경기가 없는 월요일, 그들의 뇌는 구단주 또는

감독 모드로 전환된다. 혼자서 자신만의 선수 라인업을 짜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돈 들 일이 없으니 우리 팀, 다른 팀의 선수들을 골백번도 더 사고판다. 변변한 시합 장면 하나 없는 영화 〈머니볼〉이 야구영화로서 매력적인 것은, 팬들이라는 족속이 시합 없는 날마다 일로 삼고 되풀이하는 구단주 놀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퍼펙트 게임〉은 철저히 팬심 모드다. 사실 이 영화의 서사는 집중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다. 게다가 1987년 5월 16일에 있었다는 두 투수의 실제 승부 결과를 모르는 이도 없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흡인력을 가지는 것은 흥분에 겨워 앉지도 못한 채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심중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는 대사를 통해 관객들을 직격한다. “지든지 이기든지 내 게임은 내가 나갑니다. 내가 끝을 봅니다”라는 최동원의 대사. “오늘 이후로 역사는 한 사람만 기억할 거다. 나는 그것이 선동열이 아니라 최동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용철(조진웅)의 대사. 그에 호응하며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외치는 무명 선수의 대사까지. 극적으로는 명확히 신파에다 유치할 법도한 대사들이지만, 그만큼 야구를 바라보는 팬들이 가진 날것 그 대로의 감정과 조응한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현실의 그라운드로 발을 내딛은 야구영화들은 좀더 팬에 가까운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야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특히 이 두 편의 작품은 야구의 두 얼굴인 냉정(〈머니볼〉)과 열정(〈퍼펙트 게임〉)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의 서사로도 야구를 이길 수 없고 신화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이 냉정과 열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만들어질 야구영화가 선사할 수 있는 쾌락의 양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New York

세계 공연예술인의 배움터

제64차 ISPA 뉴욕 총회에 다녀오다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64차 ISPA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국제공연예술협회)'의 줄임말로,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예술경영인, 극장관계자, 예술기금 관계자 등 공연예술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맺는 정기 모임이다. 매년 1월에는 뉴욕에서 정기총회가 열리고, 6월에는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 6월에는 ISPA 서울 총회가 개최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한다.

그동안 여러 번 ISPA 총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계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과 시야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뉴욕 총

회의 주제는 '행동하는 예술 - 사회, 위기 그리고 변화(Art in Action - Community, Crisis & Change)'였다. 이 주제 아래 7개의 소주제로 구분되어 3일간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건축 관계자들이 나와서 예술적인 거리와 예술적인 건물이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버려진 화물 철길 위에 야생식물을 심어서 녹색길(greenway)로 바꾼 뉴욕 맨해튼 20번가의 'HIGH LINE'은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 주변 부동산 경기까지 활성화시킴으로써 성공적인 환경 재활용 사례로 소개됐다.

ISPA가 선정한 10개의 예술 작품을 예술가와 제작자가 직접 소개하는 피치 세션(Pitch New Works Now)도 신선했다. 그 중 특색 있었던 것은 '듣고 상상하는 시네마(Earfilms Cinema)'였다. 관객이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이어폰을 끼고 3D 사운드와 스토리텔러의 라이브 내레이션을 들으면서 각자 저마다의 영화를 상상하며 만들어가는 것인데, 예술 행위에 대한 편견을 깨는 프로그램이기에 기억에 남는다.

예술 활동을 위한 자금 조성은 언제나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표되었다. 영상을 통해 예술가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금 목표액과 현재까지의 모금액을 제시하면서 "내게 투자하세요(Fund Me!)" 또는 "나는 돈이 필요해요(I need Money!)"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모습은, 정치사회적으로 위협적인 환경에서는 예술가들도 일반인의 소통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모금 활동에 나서는 등 변화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대토론(Great Debate)'은 열정적이었다. 토론의 주제는 "당신은 지금 한정된 기금에 비해 예술 관련 단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가?"였다. 연사들의 채치 있는 입담과 함께 ' 많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ISPA 총회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이 객석에 놓인 마이크 앞에 줄을 서면서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개인적으로 어느 편의 손을 들어 줘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이다. 마지막에는 총회 참석자 전원의 투표가 있었는데 정확히 5:5의 집계 결과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폐막식은 오는 6월에 열리는 ISPA 서울 총회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서울 총회의 유치 기관으로서 서울문화재단 김홍남 본부장의 총회 유치에 대한 스피치가 있는 후 필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ISPA 서울 총회의 의미를 발표했다.



ISPA 뉴욕 총회 기조연설.

이번 총회의 참석자는 410명으로, 그동안 내가 참석했던 ISPA 총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ISPA 총회에서 활약한 멤버들에게 시상하는 어워드 디너(Award Dinner)의 분위기도 따뜻했으며, 다음 총회의 개최자인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폐막 각테일이나 뉴욕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특별 리셉션에서도 활발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ISPA 뉴욕 총회의 활기찬 모습은 환영할 만하면서도, 이번 주제가 '위기 속의 변화'임을 생각하면 그만큼 현재 세계 공연예술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6월에 있을 ISPA 서울 총회의 주제는 '문화변동(Cultural Shifts)'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서울과 아시아의 문화 열풍이 세계 공연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IT와 SNS 등 기술적 측면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논의한다고 하는데 매우 기대가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월드컵과 올림픽 유치를 통해 스포츠에서는 국제적 인지도를 많이 얻었고, 한국기업의 활약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는 드라마와 K-POP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순수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이미 많이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의 발전은 예술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욱 큰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6월에 있을 ISPA 서울 총회에 한국의 예술가 및 공연예술 관계자, 정부의 문화정책 관계자, 기업의 기금 지원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공연예술 각 분야의 세계적 리더들과 함께 세계 공연예술의 트렌드와 각국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문화 현상을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소중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글_ 문훈숙 현재 유니버설발레단, 유니버설아트센터, 유니버설발레 아카데미, 워싱턴 키로프 발레아카데미가 소속된 유니버설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ISPA 총회에 여러 번 참가하면서 그 지적 경험을 소속 단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 그 결과, 유니버설발레단 부설 발레아카데미는 세계 유명 발레단에서 주역급으로 활약하는 세계적 무용수를 다수 배출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발레단은 우리나라 예술단체 중 가장 활발히 국제무대에 도전하여 최근에는 '2011-2013 유니버설발레단 월드투어'를 통해 그 결실을 맺고 있다.



1



2

Berlin

동독과 서독의 근접조우

냉전시대 동서독 미술 최초 동반전시 <분단된 하늘>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동서냉전 시절, 동서독 미술의 흐름은 어떻게 갈라졌을까? 동서독 분단시절을 미술사적으로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베를린 신국립 박물관이 ‘분단된 하늘’이라는 타이틀로 1945년부터 1968년까지의 동서독 회화, 조각 등 박물관 자체 소장품을 전시한다. 작년 <모던 타임즈(Moderne Zeiten), 컬렉션 1900–1945>에 이어 20세기 중반 이후의 작품을 선보이는 시리즈 전시 중 두 번째다. 내년에는 68년 이후 현대 미술작품 컬렉션을 전시할 계획이다. 3부로 된 시리즈인 이 전시회들은 작년에 시작해 내년까지 계속되는 프로젝트다. 작년 <모던 타임즈> 전시회가 파울 키르히너, 파울 클레, 뭉크 등 클래식 모던의 대표작을 선보이며 당시 미술사조와 격동의 시대상을 보여줬다면, 올 연말까지 열리는 <분단된 하늘>은 2차 대전 이후 독일 동서 분단의 간접 체험을 안겨준다.

2003년 이곳에서 동독 미술전이 성황을 이룬 바 있지만 분단시절 동서독 미술품을 나란히 전시하기는 처음이다. 통일 전 동서독 국립미술관이 소장품들을 다시 분류해 전시하는 것은 20년이 지나서야 신세대 큐레이터들이 할 수 있었다. 그만큼 시간적, 심리적 거리가 필요했다. 전시회 타이틀은 작년 12월에 작고한 동독 출신 작가 크리스타 볼프의 소설 <분단된 하늘>에서 따왔다. 동서독 남녀의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냉전이 지배했던 한 시대를 대표한다. 소설을 바탕으로 동독 출신 영화감독 콘라드 볼프가 영화로 만들었다. 전시회에선 여주인공이 “하늘조차 동서를 이어주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전시회 <분단된 하늘>에서는 1945년부터 1968년까지 활동하던 대표적인 동서독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실물화가, 서독에서는 추상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독의 경제 기적, 장벽 건설,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 미국의 아폴로호 발사, 케네디와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는 사회 전반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서독의 작품들은 미국, 이태리, 스페인 등 국제적이다. 한편 동독의 작품들은 동독 출신 화가의 작품 일색이다. 동독 작품 베르너 튀프케의 <법학자>나 프리츠 크레머의 <독일, 창백한 어머니>에서 볼 수 있듯 주제가 나치와 전쟁을 비판하는 휴머니즘에 한정되어 있다. 서독 작품은 추상화부터 팝아트, 요제프 보이스, 백남준으로 대표되는 비디오아트까지 다양한 조류를 감상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smb.museum



식품을 정리 중인 마음의 식당 자원봉사자. © Eric Patin

Paris

겨울을 덥히는 식당

마음의 식당
Restos du cœur

울겨울에도 프랑스 전역을 따뜻하게 덥혀줄 ‘마음의 식당’이 열렸다. 전국에 2,000여 개의 센터가 있는 마음의 식당은 인기 코미디언 콜뤼쉬(Coluche)가 1985년에 시작한 자선사업으로, 매해 동절기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과 빈곤층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비영리, 비종교 시민단체로서 작년에는 6만 명의 참여자가 86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마음의 식당은 추운 겨울에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26년의 세월 동안 활동 영역을 차차 넓혀왔다. ‘아기를 위한 마음의 식당(Restos bébé du cœur)’은 빈곤층이나 체류 서류가 없는 외국인 임산부의 출산과 신생아 육아를 돕는다.

마음의 식당은 단순한 구호 활동을 펼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생활 또한 필수적인 생존 요소로 고려하여 취미,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주안점을 둔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문맹 탈출을 도우며 학업을 보조한다. ‘극장에서의 만남(Rendez-vous au cinéma)’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매주 한 회, 참여 극장들에게 반값으로 지원받은 영화표를 구호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게 무료로 나누어준다. 배우가 참여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시즌의 마감을 기념하는 영화제도 연다.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마음의 식당을 찾는 사람이 전년 대비 5~8% 가량이나 증가했다. 절실한 지원 요청에 파리는 14만 5천 유로를 추가 지원하고 파리 각지의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줄기로 약속했다.

홈페이지 www.restosducoeur.org

글 서도은 사회학과 철학,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현재 파리에서 영상미학 박사과정 중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한다.



오페라 <파우스트>의 한 장면. © Ken Howard/Metropolitan Opera

New York

오페라를 가까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HD 라이브
The Met: Live in HD

공연예술인 오페라를 HD로 상영한다는 계획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측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오페라 팬들은 ‘과연?’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가 처음으로 HD 라이브로 상영된 후, 벌써 여섯 번째 시즌을 맞았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남미,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의 극장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HD 라이브를 감상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트센터나 학교 등에서도 상영된다. 뉴욕에 가야만 볼 수 있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기획이 성공적이라 HD TV채널로까지 확대되었고, 권위 있는 TV상인 에미상과 음악상인 피바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제 HD 라이브를 대체 포맷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형태로 이해하는 관객도 생겨날 정도로 팬들이 많아졌다. 아이디어는 참신하나 결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 HD 라이브 기획을 실행에 옮긴 이는 2006년 8월부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수장이었던 피터 겔브다. 뉴욕에서는 오프닝 나이트를 타임 스퀘어와 링컨센터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측에서 공공 학교에서의 상영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도니제티의 <안나 볼레나>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글래스의 <사티아 그라하>, 헨델의 <로렐린다>, 구노의 <파우스트>,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등 10편의 상영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CGV와 호암아트홀, 웨라톤 그랜드 위커히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metoperafamily.co.kr

글 신지윤 뉴욕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한국에서 국문학과 미술사학을, 시카고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서교 예술실험센터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

우쿨렐레의 무한 매력 속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조금씩 집안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엄마는 당시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것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그중에 선택한 것이 카스텔라 만드는 기계, 그리고 피아노 학원 보내기. 첫째에게 못해준 것을 막내딸에게 다 쏟아 붓듯 엄마의 피아노에 대한 집착은 강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갈 리는 만무. 매일 반복되는 연습에 사과 모양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학원 선생님의 볼펜으로 손가락 때리기 신공. 재미없는 바이엘, 88 건반 아래위를 무한 질주하는 음표의 압박 체르니. 어린 아이가 그 광활하고 심오한 음악세계를 이해할 리는 만무했다. 감동도 재미도 없었던 나의 첫 뮤직 라이프는 즐기차게 학원을 뺄뻣은 결과, 6년 만에 끝이 났다.

대학 신입생 때, 고등학교 선배의 손에 이끌려 노래 동아리에 가입했고, 6년간 피아노를 배웠다는 하나만으로 신시사



서교예술실험센터의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는 12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마지막 날(2월 3일) 조별
연주회를 끝을 맺는다.



이제 반주를 맡았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대학생활 대부분을 보내면서 짬짬이 기타, 베이스 기타를 선배들 어깨 넘어 배웠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지를 다잡는 데 연주의 주목적이 있었던 당시는 개인적인 재미보다는 목적이 우선했던 시절이었다. 이 생활도 학교를 졸업하면서 끝.

취직을 하면서 집과 회사를 오가는 반복적인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할 무렵, 다시 악기를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뭘 하지? 기타는 손가락에 물집 잡힐 때까지 연습하는 게 싫고, 물집이 잡히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 또 연습해야 하는 게 싫고, 선택은 다시금 피아노, 프리스타일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재즈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피아노가 없는 관계로 연습량이 부족하여 결국 비싼 학원비만 날리고 또 포기.

그래도 악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중, 기타 같이 생겼지만 양증맞게 작은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더러 눈에 띄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우쿨렐레. 크기가 작아 휴대성이 좋고 초보자도 한 달 정도만 배우면 간단한 연주를 할 수 있단다. 그래, 이거야! 기타도 조금 쳤으니 남들보다 쉽게 배울

수 있겠지? 나의 진정한 뮤직 라이프는 이제야 시작이다!

하찌 아저씨와 함께 '콰잇' 나우!

서교예술실험센터의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는 12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마지막 날(2월 3일) 조별 연주회를 끝을 맺는다.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됐을 때 8만 원의 저렴한 수강료, 홍대라는 장소적 이점보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하찌 아저씨였다. <남쪽 끝섬> <장사하차> <차라도 한잔>의 그 하찌?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콰잇' 나우!

한때 기타 조금 쳤다고 자만심에 가득 찬 채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한 시간 배우니까 악기를 처음 접한 왕초보도 웬만큼 친다. 수강생은 정원을 조금 넘긴 24명으로, 10대 청소년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 꼬마 딸아이와 함께 배우

배워보자! 우쿨렐레 연주 팁



*우쿨렐레 연주의 바른 자세

- 안았을 때나 연주할 때 편안한 자세가 중요하다. 오른쪽 가슴 안쪽으로 바디를 부착하고 오른팔로 우쿨렐레가 움직이지 않도록 감싼다. 등을 쭉 편 바른 자세로 연주한다. 그래도 자세가 편하지 않을 때는 스트랩을 이용한다.



*엄지손가락의 위치

- 넥을 가만히 감싸는 형태로 1~2번 플랫보드 위쪽으로 편하게 위치시킨다. 연주할 때나 우쿨렐레를 안았을 때나 항상 이 위치를 기억하자.



*튜닝하기

- 우쿨렐레 줄은 잘 풀리기 때문에 수시로 튜닝을 해줘야 한다. 튜닝기를 사용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 맨 윗줄(4번)부터 맨 밑줄(1번)까지 G(솔), C(도), E(미), A(라)로 맞춘다.

러 온 아빠, 독학으로 연습하다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다는 초등학교 선생님, 장롱 속 우쿨렐레를 다시금 꺼내온 사람부터 악기를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 들까지. 첫날은 악기가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선생님이 사람 수만큼 새 악기를 가져오셨다. 마음에 드는 악기는 그 자리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우쿨렐레(ukulele)는 하와이 전통악기로 '벼룩'(uku)과 '뛰어오르다'(lele)의 합성어이다. 소리가 마치 벼룩이 통통 튀어 오르는 것과 흡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몸통의 크기에 따라 소프라노(몸통 길이 24~25cm), 콘서트(28~29cm), 테너(32~33cm), 바리톤(38~40cm)으로 구분된다. 소프라노는 오리지널 사이즈로 소위 '스탠더드'라 불린다. 하와이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들 한다. 주로 반주곡에 사용된다. 콘서트형은 소프라노보다 크기가 큰 만큼 소리도 크다. 주로 연주형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이다. 하찌 선생님은 콘서트형으로 연주한다. 테너, 바리톤은 중후한 음이 특징으로, 기타 소리와 흡사하다. 낙원상가를 돌아다니다가 대중적인 브랜드라는 세고비아 카운티스 콘서트형 악기를 구입했다.

다시 시작된 뮤직 라이프

수업은 튜닝하기, 지난주에 배운 곡 복습, 다양한 스트로크 주법 연습, 아르페지오 주법 연습, 코드 연습, 새로운 곡 연습으로 이어지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조별로 자유롭게 연습한다. 각자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스트로크 주법, 음계 등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상을 보내주시기도 한다.

우쿨렐레 줄은 기타의 쇠줄과 달리 나일론 줄을 사용하여 손가락이 덜 아프다.

우쿨렐레(ukulele)는 하와이 전통악기로 '벼룩'(uku)과 '뛰어오르다'(lele)의 합성어이다. 소리가 마치 벼룩이 통통 튀어 오르는 것과 흡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줄이 스스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연주할 때마다 튜닝을 해주어야 한다. 피아노 음에 맞추거나 각 줄마다 똑같은 음을 치면서 비교하면서 맞출 수도 있지만, 정확하면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튜닝기를 쓰는 것이 좋다.

스트로크는 오른쪽 팔꿈치는 고정시키고 손목의 스냅으로 만 줄을 친다. 손톱이 길면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되도록 손톱은 짧게 깎는다. 코드를 연습할 때는 손가락의 위치도 함께 익힌다. 코드를 바꿀 때 손가락의 이동이 가장 적은 최적의 위치를 표준으로 잡아둔 것이다. 물론 조금씩 변화는 가능하지만 되도록 코드별 손가락 위치도 함께 외운다.

수업의 기본이 되는 곡은 〈나비야〉이다. C, G7으로만 코드가 구성되어 주법 연습, 음계 연습, 아르페지오 연습 등 모든 수업에 교본으로 사용된다. 그 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역시나 코드가 간단해 초보자용으로 적합한 〈You're My Sunshine〉 등을 주요 곡으로 연습한다. 수업이 끝난 후 이어지는 조별 연습은 각 팀에서 자유롭게 지정한 곡으로 3~4명씩 모여서 진행된다. 이때 연습한 곡으로 마지막 수업 때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선생님께 조별 레슨을 받을 수도 있다. 각 작가 연주회 때 발표할 곡은 〈별들의 밤〉 〈또 만나요〉 〈도레미송〉 등이다.

요즘 들어 우쿨렐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각종 동호회도 생겨나고 악기 전문점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구할 수 있다. 우쿨렐레 악기에 대한 정보부터 악보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우쿨렐레 사랑모임(<http://cafe.daum.net/ukulelove>), 뮤직메카(www.musicmeca.com) 등이 있다. 우쿨렐레 사랑모임 카페는 지역별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수업이 끝난 후 우쿨렐레를 멘 채 친구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들 취기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자, 연주를 해보라고 아우성이다. 나의 서툰 연주에도 모두들 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 하기 시작한다.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싶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시작된 나의 뮤직 라이프는 이제야 시작이다. 내친 김에 책장에 꽂아만 둔 작곡책으로 곡도 만들어볼까? 일단 발표회에서 무사히 마쳐놓고, 이제 폭풍 연습에 돌입해야겠다. 나비야, 나비야~.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 <http://cafe.naver.com/seoulartspace>

강사 하찌

“우쿨렐레의 울림은 위로받는 느낌이다”



우쿨렐레 시작 3년 만에 우쿨렐레만으로 음악작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 뮤지션 하찌는 ‘하찌와 TJ’, ‘하찌와 애리’ 등으로 6년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다. 크고 작은 공연으로 바쁜 나날이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우쿨렐레를 가르치고 있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에 깃스를 하고도 수업을 진행할 만큼 열기가 넘친다.

처음 우쿨렐레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 ‘하찌와 TJ’ 1집에 〈남쪽 끝섬〉이라는 노래가 있다. 하와이풍의 노래라 우쿨렐레로 연주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자리에서 15분 연습해서 즉석에서 녹음을 마쳤다. 6년 전쯤인 것 같다. 그때부터 우쿨렐레에 반했다. 작년부터는 ‘하찌와 애리’로 활동하면서 우쿨렐레로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다가 기타는 다 까먹을지도 모르겠다.(웃음)

우쿨렐레의 매력은 무엇인가. 울림이 예쁘다.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랄까.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크기가 작은 만큼 소리도 작다. 차분한 악기로 음악을 하고 싶었다.

한국에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4월이면 딱 6년이 된다. 그 사이에 일본 진출도 했다.(웃음)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성향과 맞다고 해야 하나? 공감이 잘 맞는 것 같다.

일본에도 유사한 창작공간이 있나. 내가 겪어본 바로는 없다. 음악학원 같은 사설기관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못 본 것 같다. 아주 훌륭한 곳이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레슨비가 저렴하고, 작가에게도 많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된다. 또한 작가와 시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쿨렐레 수업도 그렇지만 최근에 했던 〈텐트 올라잇〉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얼마나 좋은가.

우쿨렐레를 배우려는 초보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조건 좋은 악기로 시작해야 한다. 초보자라고 연습용으로 하면 튜닝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더러 있다. 소리가 좋으면 만족감이 생기고 계속 흥미가 생기지 않나. 아직 악기를 보는 눈이 없는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좋은 악기는 비싸다.(웃음)

수강 중인 수강생에게 한마디 해달라. 악기 하나를 배우는 데 여덟 번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나는 가르친다기보다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것이다.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때와 장소가 될 때마다 연주하고 부른다면, 더 나아가 자신만의 음악도 만들어본다면, 평생의 보물이 되지 않을까.

글. 장인숙 2주 만에 〈나비야〉를 마스터했으며, 알고 보면 늦깎이 천재가 아닐까 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다.

사진. 오계욱 느긋한 일요일 오전의 커피 한 잔을 꿈꾸며 일주일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진가 지.

Must 7

안윤모, 책과 노닐다, Acrylic on canvas, 116.8x91cm, 2011



02



강석현, Floaters, 랜티컬러, 64x64cm, 2011

03 임동혁이다

임동혁 리사이틀 | 2월 18일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577-5266

클래식계의 대표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여 2년 만에 한국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던 그가 지난 10년간 소년에서 성인으로, 신동에서 젊은 거장으로 거듭난 과정을 확인하는 시간.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2번,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등을 연주한다.

01



01 사라진 욕망들

사라진 직업의 역사 | 이승원 지음 | 자음과모음 펴냄
전화교환수, 번사, 기생, 인력거꾼, 여차장, 물장수, 약장수... 이 사라진 직업들이 가리키는 것은? 직업의 생성과 소멸에 감춰진 일상의 욕망과 치열함에 대해 사유하는 캐주얼한 인문교양서다. 지금 여기 문화와 일상의 지형도가 된 역사를 탐사한다. 우리네 근대식 삶의 흔적과 무늬를 더듬는 흥미로운 여정.

02 아트페어 30년

2012 화랑미술제 | 2월 23일~2월 26일 |

코엑스 D홀 | 02-733-3706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가 서른 살이 되었다. 화랑미술제는 참가화랑이 발굴·지원하는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종합미술박람회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 백남준, 이우환, 김중하, 이응백, 강강훈, 박대조 등부터 쿠사마 야오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같은 해외 거장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03



04 믿고 보자, 김민기

어린이 연극 <고추장 떡볶이> | 2월 26일까지 |

학전블루 소극장 | 02-763-8233

극단 학전과 김민기가 만들면 다르다? <고추장 떡볶이>는 어린이 연극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학전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겨울방학이면 많은 아이들이 <고추장 떡볶이>를 떠올릴 정도. 이번 공연도 어느덧 2월이면 끝이 나니 서두르시라. 비룡과 백호 형제가 엄마가 없는 며칠 동안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로 즐거운 참여를 유도한다.



05

여인과 매화와 향아리,
1956, Oil on Canvas,
60.5x41cm © 한기미술관

05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 김환기>전 | 2월 26일까지 | 갤러리현대 신관 및 본관 | 02-2287-3500

대표작을 엄선하고 모으는 데만 1년이 걸렸다. 2004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김환기 회백의 대규모 회고전이다. 미공개작 4점을 포함해 시대별 주요작품 60여 점을 총망라하여 소개한다. 한 곳에서 보기 힘들었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로, 대가의 욕심 평생의 작가적 행보와 작품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그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기회.

06 두 번째 파묵

고요한 집 | 오르한 파묵 지음 | 이난아 옮김 |

민음사 펴냄

“그들은 삶을 부둥켜안을 줄 몰랐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눈물만 흘릴 줄 알았다. 가련한 사람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내 이름은 빨강>의 작가 오르한 파묵의 두 번째 소설. 터키 근현대사를 한 집안의 비극으로 풀어낸다. 작가 스스로 젊은 날 자신의 영혼이 반영된 소설이라 밝혔다.

06



07

07 원작의 감동 넘을까

뮤지컬 <닥터 지바고> | 1월 27일~6월 3일 | 샤롯데씨어터 | 1588-5212

성공적인 월드 프리미어를 가진 뮤지컬 <닥터 지바고>의 한국 초연이 기다린다. 미국 유명 프로듀서 아니타 왁스만, 호주의 대표적인 프로듀서 존 프로스트, <지킬 앤 하이드> 등을 제작한 한국의 신춘수까지 공동으로 프로듀싱하는 합작 프로덕션이다. 주인공 유리 지바고 역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이 낳은 스타 홍광호가 맡았다.

Cultural Calendar

2 월 의 재 단 소 식

02



〈풍찬노숙〉



국수호의 사도세자 이야기 〈思悼〉



문래예술공장 '장롱 속 기타 꺼내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뷰티풀 번아웃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18(토)~2/26(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02-2029-1700
무용	국수호의 사도세자 이야기 〈思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10(금)~2/11(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02-760-4840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남산예술센터				
공연	남산예술센터 시즌자체제작공연 〈풍찬노숙〉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1/18(수)~2/12(일)	02-758-2150

서교예술실험센터				
프로그램	시민대상 프로그램 〈서교음악싸움〉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2/6(월)~2/27(월) 14:00~15:30(매주 월)	02-333-0246
자체기획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 특별공연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2/3(금) 19:00	
기획대관	〈The Ambiguity of Play〉展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지하전시장	2/3(금)~2/12(일)	

신당창작아케이드				
전시	신당생활사박물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디자인갤러리	1/17(화)~2/29(수)	02-2232-8833

연희문화창작촌				
프로그램	2012 봄학기 연희문화학교	연희문화창작촌	3/6(화)~5/29(화) 19:00(매주 화)	02-324-4600, 4690

문래예술공장				
모집	시민 예술창작 워크숍 〈장롱 속 기타 꺼내기〉	문래예술공장	1/11(수)~1/26(목)	02-2676-4300
프로그램	시민 예술창작 워크숍 〈장롱 속 기타 꺼내기〉 5기	문래예술공장	1/30(월)~4/5(목)	
사업설명회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사업설명회	문래예술공장	2월 중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 MEET 사업설명회	문래예술공장	2월 중	

성북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브런치시네마 & 시네마카페	성북예술창작센터 음악실 공간	2월 10:30~13:00 (매주 수, 목)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예술체험전시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29(수)	02-871-7400, 7417
	가족 체험 뮤지컬 〈둥글게 둥글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7(토)~2/4(토)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특강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4(수)~2/15(수)	

가든파이프(문화술프로젝트)				
프로그램	아이스가든 (아이스링크)	가든파이프 중앙광장	~2/12(일)	02-2157-8770
	타일벽화전시	가든파이프 라이프-웍스 연결통로	상설전시	

S F A C N e w s

2 월 의 재 단 소 식

02



ISPA 뉴욕총회 참가자 네트워킹

세계 공연예술계 리더들이 모이는 지성과 감성의 복합체

‘제26회 ISPA 국제공연예술협회 서울총회’ 사전등록

세계 공연예술계 리더들의 비전 공유의 장인 ISPA(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국제공연예술협회) 제26차 서울총회의 등록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문화재단과 ISPA 뉴욕 본사의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서울총회는 올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국내 예술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Cultural Shifts : 문화변동’을 주제로 한국, 아시아 및 세계의 공연예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다루며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영감을 제시한다. 또한 세계적인 공연예술 리더들에게 한국의 현대 및 전통예술을 선보이며 그 발전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장이 될 것이다.

워크숍, 회의세션, 교류행사, 공식 쇼케이스, 홍보부스 전시 그리고 ISPA의 전통행사인 ISPA 어워드디너 등 공연예술계의 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창의적 감성을 충전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과 개인은 총회등록이 필요하며 ISPA 공식 웹사이트(www.ispa.org)를 통해야 한다. 특히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자에게는 등록비를 할인해줄 예정이다.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ISPA 국제공연예술협회는 뉴욕의 링컨센터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주요 공연시설은 물론, 영국문화원과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챔버 등 세계적인 문화, 공연예술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이다. 북미 아시아 등 30개국의 문화예술계 리더그룹, 실무전문가, 예술가,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ISPA 총회에 매년 참가하여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사전등록 안내

일시	2월 14일(화) ~
문의	02-3290-7052-4 ispa2012seoul@sfac.or.kr

남산예술센터 상주극작가 김지훈과 젊은 연출가 김재엽의 만남 연극 <풍찬노숙>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는 2011년 남산예술센터 상주극작가로 선정된 김지훈 작가의 <풍찬노숙>으로 1월 18일(수) 2012년 시즌 프로그램의 문을 연다. 지난 여름 낭독공연을 거쳐 무대화되는 <풍찬노숙>은 농업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외래인구 유입의 분열 단계에서 비롯될 혼란을 실존 가능한 신화의 공간을 통해 재현하는 작품이다. 이름 없는 혼혈족이 민족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역사적 출발선을 찾는 과정과 문화 윤리적 차별, 불이익 그리고 혼혈된 민족의 인간성에 내재된 응분의 정한이 장장 4시간에 걸쳐 펼쳐진다. 가법고 일상적인 주제의 연극이 넘쳐나는 지금, <풍찬노숙>에 주목할 이유는 지나간 역사가 아닌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우리는 빈부격차에 따른 계급화, 외국인노동자 계급에 대한 차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에 대한 불편함으로 지금을 살고 있다. <풍찬노숙>은 바로 이러한 ‘혼혈과 계급’의 개념을 과감하게 전복시킨다.

신화적 이야기 속에서 거대 담론과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작가 김지훈과 동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주목받는 젊은 연출가 김재엽이 <풍찬노숙>으로 첫 호흡을 맞추었다. 또한 윤정섭, 이원재, 김지성, 고수희, 김소진, 지춘성, 장성익, 조정근, 한갑수, 김효숙 등 총 16명의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어느 시대건 존재했던 갈등과 불안, 그리고 그 그늘을 밀어내는 힘을 통해 재건된 미래 상에 대한 묵직한 화두가 관객에게 던져진다.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프로젝트

공연과 전시로 2012년을 풍성하게 만들 새로운 입주예술가 총 11팀

홍은예술창작센터 신입 예술가 입주

홍은예술창작센터 2012년 신입 입주예술가 11팀이 입주를 완료하고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 12월 실시한 시각·무용 분야 입주예술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입 예술가들은 순수미술 분야 4명, 프로젝트 수행 분야 1명, 무용 분야 6팀(단체4, 개인2) 등 총 11팀이며, 앞으로 홍은예술창작센터에서 개별 창작활동 및 시민대상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무용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실험적 성향의 공연을 발표해온 연출가이자 무용가인 강화정, 한국 현대무용의 추상적 이미지를 벗어나 좀 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안무와 공연을 추구하는 댄스씨어터 창(Dance Theater Chang, 대표 김남진), 말하기와 노래하기, 일상성에서의 움직임 찾기 등으로 표현적 메소드를 확장시키고 영상, 음악, 소리 등 다른 분야와 춤의 적극적 소통을 시도하는 김정은 댄스프로젝트, 무용과 뮤지컬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관객에게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도해내는 안무가 홍혜전(홍혜전 댄스컴퍼니)을 비롯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유빈댄스와 레나드댄스 프로젝트가 입주예술가로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수미술 분야에서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자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백정기, 슈투트가르트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현재 '홍은'이라는 특별한 물리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그 속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원호, 소재를 시각화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계한 시스템 아래 형태들을 나열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이은우,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독특한 색감의 그림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우성 등 총 4명이 입주하여 활동한다.

한편, 프로젝트 수행 분야에 선정된 '디 아더 가이(the other guy)' 팀은 서대문구 재활용센터(예정)에서 '세탁기 장식장'이라는 타이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활용센터라는 장소와 공간적 특성, 그리고 그곳의 잡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 Jody Wood, Video still from (seizeduplicaterepeat), HD Widescreen Video, 11 min

화들이 내포한 맥락(일상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물건의 순환성 등)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공간과 사물, 예술과 공간, 예술과 관객을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2년 멕시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예술가 5명 포함 7명 입주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제3기 해외예술가로 선정된 가브리엘 리코(Gabriel Rico, 멕시코), 레슬리 조이너스(Leslie Joynes, 미국), 아담 톰슨(Adam Thompson, 영국), 조디 우드(Jody Wood, 미국), 퀴틴 코넷(Quentin Cornet, 프랑스) 등 2012년의 첫 해외예술가 5명이 1월부터 4개월 일정으로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들은 금천예술공장 입주기간 동안 각자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작업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아담 톰슨은 이미 2011년 유네스코 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이번 입주생활을 통해 작품으로 풀어어나가고자 한다.

또 미국 퍼시픽대학과 캔자스대학에서 수학한 조디 우드는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의 '죽음'이라는 명제에 대해 개인별 심리 또는 사회적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로 풀어보고 싶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2011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되어 창작자원을 받은 바 있는 김병규(미디어아트) 작가를 비롯 안정주(영상) 작가는 제3기 입주예술가로 선정, 금천예술공장에 합류하였다.

한편 금천예술공장 개관과 동시에 입주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와 작업을 진행해온 제1기 입주예술가 박능생(회화), 이호진(회화), 정희주(설치) 등 세 작가는 28개월 동안의 긴 입주생활을 종료하면서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특히 박능생, 정희주 작가는 퇴실에 즈음하여 (두 개의 시



성북예술창작센터 브런치 시네마 & 시네마 카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



선 - 풍경과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활동 흔적이 담긴 스튜디오를 방문객들에게 오픈하며 뜻깊은 안경을 고했다.

성북예술창작센터의 주부시민을 위한 영화감상회 브런치 시네마 & 시네마 카페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는 공간 활성화와 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주부들을 위한 '브런치 시네마'와 '시네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2012년 2월에도 '브런치 시네마'와 '시네마 카페'를 진행한다. '브런치 시네마'는 성북예술창작센터를 처음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간투어와 간단한 브런치를 제공하는 영화감상 프로그램으로, 주부들에게 영화감상뿐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간을 소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시네마 카페'는 '브런치 시네마' 참가 후 재방문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공간투어 및 티타임이 제공되는 영화감상 프로그램이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온라인카페 cafe.naver.com/sbartspace를 통해 접수 중에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성북예술창작센터로 하면 된다.

일시	2/1(수)~2/29(수) 10:30~13:00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문의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 <둥글게 둥글게>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서울시창작공간 중 어린이 대상 예술체험공간으로 특성화하여 주목받고 있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겨울방학 특별 프

로그램을 마련했다. '생각이 뛰어노는 놀이터'라는 모토로 지난 2010년 12월 관악구 옛 은천동사무소 자리에 개관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신장을 목표로 예술체험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참가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과 예술체험놀이가 어우러진 예술체험전시 <나의 특별한 동화이야기>, 가족 체험 뮤지컬 <둥글게 둥글게>,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특강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등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들의 정서적 성장과 건강한 겨울나기를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재미와 유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는 동화속 원화를 감상하는 전시 관람과 작가들과 함께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보며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다. 전시는 12월 28일(수)부터 2월 29일(수)까지 상시관람 가능하며 체험은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전시 및 참가비는 무료다.

뮤지컬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 뮤지컬 <둥글게 둥글게>는 발성과 호흡훈련부터 뮤지컬의 기본요소인 노래, 율동, 연기, 그리고 마지막 발표까지 한 편의 뮤지컬을 체험해보는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2~5인 이내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2월 4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2회 각 90분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 역시 참가비는 무료다.

부모 대상 자녀교육특강 프로그램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는 어린이 예술교육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1~2월 중 격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전예약한 5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약 90분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3,000원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 www.seoulartspace.or.kr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사무실(02-871-7400)로 하면 된다.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황영란, 이지원

● 문래예술공장 〈장롱 속 기타 꺼내기〉 참가자

황영란, 이지원

〈장롱 속 기타 꺼내기〉 4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마지막까지 기타 연습에 열심인 황영란 씨와 아들 이지원 군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곧 이어지는 5기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할 계획이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완곡 연주하는 게 꿈이라는 황영란 씨. 모자가 함께하는 멋진 기타 연주가 기대된다.

어떻게 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나?

남편이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문래예술공장을 발견했다. 이곳으로 기타를 메고 들어가는 아이를 보고 따라들어갔다가 팸플릿에 있는 기타 강습을 발견하고 알려졌다. 마침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 상태라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던 차였는데 타이밍이 잘 맞았다.

원래 기타 배우기에 관심이 있었나?

20년 전쯤 회사 다닐 때 동호회에서 기타를 배운 적이 있다. 취미로 잠깐 했던 거라 연주법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평소에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 하나쯤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직접 배워보니 어떨까?

수업에 오면 늘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 현재는 초급 단계라 배운 부분 연습하기에 바쁘다. 그래도 아들과 함께 배우니까 든든하다. 아들에게 코드도 물어보고 연습도 같이하니 더 재미있다. 마음처럼 쉽진 않지만,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보는 게 소원이다. 남편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문래예술공장에 대한 소감은?

건물이 골목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유용한 곳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쉽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곳을 홍보하는데, 여기서 기타를 배운다고 하니 무척 궁금해하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김송희

서교예술실험센터 전시 관람객

김송희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빈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에서는 상설전시가 펼쳐지고, 지하 1층과 2층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층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고 있는 김송희 씨를 만났다.

이번 전시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를 수강하면서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인근에 약속이 있는데 마침 시간이 비게 되어 전시도 볼 겸 친구도 기다릴 겸 들렀다.

전시를 본 느낌은 어떤가?

전시명이 ‘엄마 찾아 삼천포’라길래 삼천포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전시인 줄 알았다. 그런데 회의만 하면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라니. 좀 귀엽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각 예술가, 미디어 아티스트, 설치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한 작품들이 흥미롭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옥상에서 DIY 프로그램 ‘하늘공작소’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여해보고 싶다. 영화, 인디음악을 좋아해서 ‘텐트 올라잇’을 미리 알았다더라면 참석했을 거다.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도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길 기대한다.

연극 〈풍찬노숙〉 관객

이준용

어느 평일 저녁,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은 남산예술센터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걸어 나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남산예술센터의 2012년 시즌 첫 작품 〈풍찬노숙〉을 찾은 관객들이다. 팜플릿을 들여다보며 공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던 이준용 씨에게 소감을 물었다.

어떻게 연극 〈풍찬노숙〉을 보게 됐나?

지인에게 우연히 티켓을 선물 받아서 오게 됐다. 처음 듣는 작품명이라 낯설기도 하고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공연을 본 소감은?

평소 공연을 많이 찾아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극중 혼혈족이 겪는 차별과 설움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회적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과 ‘혼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서로 뒤바뀐 듯한 객석과 무대가 독특했다. 무대 공간 연출이 기억에 남는다. 혼혈족의 봉기는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지만 그 뜨거운 열정을 대변하는 것 같은 붉은 천이 휘날리는 장면도 인상 깊었다.

추천의 한마디를 한다면.

지금까지 봤던 연극 중 가장 긴 작품이었던 것 같다. 4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함이 묻어 나는 색다른 형태의 작품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준용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많은 독자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동 화백의 인터뷰 글 중에서 '변함 없이 변하는 사람, 변하면서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글귀를 보고 올 해 삶의 모토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형 콘서트에 관한 기사도 무척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참가자 인터뷰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황미경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지식형 콘서트에 관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붕가붕가레코드 고건혁 대표의 '서울 단상'을 읽으면서 연남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다양한 서울의 문화에 대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세밀한 문화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최해성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미술관에 갔다가 테이블에 놓여있는 「문화+서울」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통해 박재동 화백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천한 곳에 귀한 것이 썩어 있다'는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영유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많이 만들고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호에도 알차고 좋은 내용 많이 담아주세요.

최대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소셜미디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다'라는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고 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목해야 할 트렌드와 흐름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아마추어 예술가 인터뷰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지 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송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전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티움, 상명아트센터,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프



제26회 국제공연예술협회 서울총회

등록오픈 | 2012.02.14

문의 | 서울문화재단 ISPA 서울총회 사무국

02-3290-7052~7055, ispa2012seoul@sfac.or.kr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www.ispa.org

동서양 문화예술 리더들이 모여 세계 공연예술계 비전을 공유하는 글로벌 소통과 공감의 SMART Talk + Network + Refresh!

ISPA's 26th June Congress SEOUL KOREA

June 11 ~ 16 | 2012

Image from Ahn Eun-Me Company | Photo by Youngmo Choe



Hosted by



Supported by



Media Partner



Partners



